

강호록

사람을 돕는 자들의 무협지

전재일

전 재 일 서 재

차례

강호록	1
제1부입문(入門)	3
무거운것은종이가아니다	4
뽑지못하는검	13
좁은길	22
제2부주화입마(走火入魔)	33
아흔세개의아침	34
제3부파문(破門)의시간	47
받는법	48
스스로읽는자	60
제4부실적교(實績敎)	75
붉은옷	76
열아홉	88
문턱	100
제5부재패(制霸)	113
아흔해	114
아흔해를세다	126
최강자가필요없는강호	140
용어표(用語表)	152
지은이—묵림(墨林)	158

강호록

강호록

江湖錄

사람을 돕는 자들의 무협지

묵림(墨林) 지음

제 1 부 입문(入門)

제 1 장

무거운 것은 종이가 아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스물여섯의 사내가 종합문(綜合門) 산문(山門) 앞에 섰다.

어깨에 등짐 하나, 품에 증서 한 장. 강호(江湖)에서는 이를 두고 삼류(三流)라 불렀다.

"무엇하러 왔느냐."

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사내는 고개를 숙였다.

"사람을 돕는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침묵이 길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낡은 조끼를 걸친 노인이 걸어 나왔다. 손에 검 대신 결재판이 들려 있었다. 서류가 세 뼘 높이로 쌓였는데 손목이 미동도 없었다. 강호에서는 저것을 무결재신공(無決裁神功)이라 했다. 하루 백 장을 처리하고도 눈빛이 흐려지지 않는 자만이 익힌다는 절기였다.

"돕는다고 했느냐."

"예."

"삼 년이면 그 말이 부끄러워지고, 십 년이면 그 말을 다시 하게 된다. 그 사이에 대개는 산을 내려가지."

노인이 결재판을 툇 던졌다. 받아 든 순간 손목이 꺾일 뻔했다. 종이 뭉치가 그토록 무거울 줄은 몰랐다.

"무겁지."

"...예."

"그 안에 사람 마흔둘이 들어 있다. 이름과 나이와 사는 곳과, 어쩌다 우리를 찾아왔는지가 적혀 있어. 무거운 건 종이가 아니다."

도현은 판을 고쳐 쥐었다. 그러자 더 무거워졌다.

"네 이름이 뭐냐."

"서도현(徐道賢)입니다."

"도현아." 노인이 돌아서며 말했다. "오늘부터 네 단전(丹田)은 여기다. 무공(武功)은 익히면 남지만, 우리 무공은 쓰지 않으면 흩어진다. 사흘만 손을 놓아도 초식(招式) 하나가 사라져. 그러니 이것만 기억해라."

눈이 어깨에 쌓이고 있었다.

"강해지려 하지 마라. 오래 남으려 해라."

종합문에 든 첫 달, 도현이 익힌 무공은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서고의 묵은 문서를 옮겼고, 결재판을 나르다 두 번 넘어졌다. 무공을 가르쳐 달라 청하면 묵 노사(老師)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아직 네 손이 무겁다."

동기 연화(蓮花)는 달랐다. 입문 열흘 만에 경청심법(傾聽心法)의 기초를 뒀고, 보름 만에 문서를 혼자 작성했다. 장로(長老)들이

수군거렸다. 백 년에 한 번 날 재목이라고. 연화는 마당을 쓸면서도 어제 읽은 비급(秘笈)의 구절을 외웠고, 도현은 마당을 쓸면서 그저 마당을 쓸었다.

"너는 답답하지 않아?" 어느 저녁, 연화가 빗자루에 턱을 괴고 물었다.

"답답해."

"근데 왜 안 물어봐?"

"물어봤어. 손이 무겁대."

연화가 웃었다. "그거 그냥 안 가르쳐 주겠다는 소리야."

"그렇지도."

그러나 도현은 계속 쓸었다. 달리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한 달이 지난 날, 목 노사가 그를 불렀다.

"마흔둘 중에 하나를 맡아라."

도현의 손이 떨렸다. 노사가 문서 한 장을 내밀었다. 성(姓) 하나, 나이 여든하나, 사는 곳, 그리고 여백.

"여백이 큰데요."

"채우는 게 네 일이다."

"어떻게 채웁니까."

"가서 앉아 있어라."

도현이 눈을 깜빡였다. "앉아만 있습니까."

"경청심법(心法) 일초식(一招式)이다. 듣기만 해라. 고치려 들지 마라."

"그게... 무공입니까?"

노사가 그를 오래 보았다.

"강호의 모든 무공 중에 그것이 가장 어렵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치고, 제일 나중에야 익혀진다."

노인은 산 아래 골목 끝에 살았다.

방은 한 칸이었고 겨울인데 불기가 없었다. 도현이 들어서자 노인은 벽을 보고 누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눈이 흐렸다.

"누구요."

"종합문에서 왔습니다."

"뭘 주러 왔소."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무엇을 주러 온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렇다고 무엇을 하러 왔는지도 말할 수 없었다. 앉아 있으러 왔다는 말은 우스웠다.

"...앉아도 되겠습니까."

노인이 손짓했다. 도현은 앉았다.

한 시진(時辰)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도현은 세 번쯤 입을 열려다 삼켰다. 무릎이 저렸다. 이것이 무슨 무공인가 싶었다. 방을 나서며 도현은 자기가 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이레 뒤에 다시 갔다. 그날도 앉아만 있었다.

그다음에도 갔다. 열 번째 방문에서 노인이 처음으로 먼저 입을 열었다.

"눈이 오는군."

"예."

"작년에도 왔지."

"예."

"작년에는 아들이 왔소."

도현은 그 말을 받아 적고 싶었다. 그러나 붓을 들면 노인이 입을 닫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들었다. 노인은 그날 아들 이야기를 했다. 아들이 왜 오지 않는지, 자기가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그 말을 물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주겠다는 이야기를.

돌아오는 길에 도현은 처음으로 가슴이 뜨거웠다. 단전 언저리에 낫선 기운이 맴돌았다.

이것이구나. 이것이 내공(內功)이구나.

그리고 도현은 그 기운을 잘못 썼다.

문으로 돌아온 도현은 밤새 계책을 세웠다.

노인에게에는 불기가 없었다. 겨울옷도 없었다. 끼니가 부실했다. 도현은 자원연계권(資源連繫拳)의 초식을 어설프게 익혀 사방을 두드렸다. 인근 상단에서 연탄을 얻었고, 다른 문파(門派)에서 이불을 받았고, 매일 끼니가 가도록 손을 썼다.

한 달 만에 노인의 방은 따뜻해졌다. 서류의 여백이 빼곡히 찼다.

장로들이 도현을 칭찬했다. 삼류가 이만하면 잘했다고. 연화는 문서를 들여다보다 짧게 물었다.

"할아버지가 이걸 다 원하셨대?"

"추우면 안 되잖아."

"그건 네 말이고."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 노사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못내 서운했다.

정월 보름, 노인이 사라졌다.

방문은 잠기지 않았고, 연탄은 반이 남았고, 이불은 개켜져 있었다. 사람만 없었다. 도현은 사흘을 미친 듯이 골목을 뒤졌다.

나흘째 되던 날 소식이 왔다. 노인은 강 건너 아들 집 앞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문 앞이었다.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채였다. 그 밤에 눈이 많이 내렸다.

도현은 산문 앞에 주저앉았다. 무릎에 눈이 쌓이도록 일어나지 못했다.

목 노사가 나왔다. 곁에 앉았다. 한참을 함께 앉아 있다가 노사가 말했다.

"무엇을 잘못된 것 같으냐."

"...더 자주 갔어야 했습니다. 더 많이 드렸어야 했습니다."

"아니다."

노사가 고개를 저었다.

"너는 물어보지 않았다."

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그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열 번을 갔으면서 한 번도 묻지 않았어. 너는 네가 주고 싶은 것을 주었다. 연탄을 원하는 노인은 없다. 추운 게 싫은 노인이 있을 뿐이지. 그이가 추웠던 건 방이 아니었다."

도현의 목에서 소리가 새어 나왔다.

"그러면... 제가 한 일은 전부."

"전부 헛되지지는 않았다. 그이는 마지막 두 달을 따뜻하게 지냈어. 그건 네가 한 일이다. 다만 네가 한 일이 그것뿐이라는 걸 알아라."

노사가 일어섰다.

"울 시간은 오늘까지다. 내일은 마흔한 명이 남는다."

그날 밤 도현은 서고에 앉아 문서를 폈다.

붓을 들었으나 손이 떨려 글자가 되지 않았다. 세 장을 버리고 네 장째에 겨우 첫 줄을 썼다.

정월 보름. 어르신이 아들의 집 앞에서 돌아가셨다.

쓰고 나니 다음 줄을 쓸 수 없었다. 한 시진을 앉아 있다가 도현은 이어 썼다.

나는 열 번을 찾아가 앉아 있었으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나는 어르신이 추운 줄 알았다. 어르신은 혼자인 것이 추우셨다. 나는 방을 데웠고, 그것은 방을 데운 일이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무엇이 필요하냐고 먼저 물을 것이다.

붓을 놓았을 때 창밖이 희끄무레했다.

그리고 도현은 단전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노인의 말을 듣던 날의 그 기운이 아니었다. 그때 것은 뜨겁기만 하고 흠뻑 젖었다. 이번 것은 낮고 무거웠으며, 흠뻑 젖지 않고 가라앉았다.

문 앞에 목 노사가 서 있었다.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 없었다.

"노사님."

"쓸 줄 알게 됐구나."

"...이게 무엇입니까. 몸이 이상합니다."

"네 첫 내공이다."

노사가 방으로 들어와 도현이 쓴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오래 보았다.

"우리 무공은 사람을 만나서 생기지 않는다. 만난 것을 적을 때 생긴다. 만나기만 하면 그건 지나간 일이야. 흠뻑 젖어. 적으면 남는다."

노사가 종이를 내려놓았다.

"단전이 어디라고 했지."

도현이 손으로 자기 배를 짚으려다, 멈추고, 종이를 짚었다.

"...여기입니다."

노사가 처음으로 웃었다.

"그래. 이제 손이 좀 가벼워졌다."

이레 뒤, 도현은 마흔한 명 중 두 번째 이름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먼저 물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돌아온 대답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도현은 자기가 앞으로 십 년을 이 산에서 내려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 제 1 장 끝 *

제 2 장

뽑지 못하는 검

마흔한 명 중 두 번째 이름은 강칠(姜七)이었다.

나이 마흔여섯. 사는 곳, 강변 판잣집. 여백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앞서 말았던 이가 쓴 글씨였다.

협조적이지 않음.

도현은 그 다섯 글자를 오래 보았다. 그리고 붓으로 지웠다. 그것은 강칠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쓴 사람에 대한 기록이었다.

강칠은 마당에 앉아 새끼를 꼬고 있었다.

왼손만 썼다. 오른손은 무릎 위에 얹혀 있었는데, 손가락이 안으로 굽어 펴지지 않았다. 팔뚝에는 오래된 흉터가 어깨까지 뻗어 있었다.

"종합문에서 왔습니다."

"알아. 저번 놈도 그렇게 말하더군."

강칠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새끼는 왼손 하나로 꼬이는 것이 아니어서, 무릎과 이 사이에 끼워 비틀고 있었다. 손이 빨랐다. 도현은 저것이 한때 대단한 손이었으리라 생각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강칠의 손이 멈췄다.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눈이 사나웠다.

"뭐라고 했나."

"무엇이 필요하시냐고 여쭙었습니다."

강철이 웃었다. 웃음소리가 마른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같았다.

"열두 해 동안 아홉 놈이 왔다 갔어. 쌀을 주고, 연탄을 주고, 이불을 주고, 어떤 놈은 나더러 노래교실을 나오라 했지.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은 건 자네가 처음이야."

"...예."

"물었으니 답하지."

강철이 굵은 오른손을 들어 보였다.

"일거리를 다오."

문으로 돌아온 도현은 사흘을 뛰었다.

자원연계권은 여전히 서툴렀으나 이번에는 목적이 분명했다. 사방을 두드렸고, 스물세 곳에서 거절당했고, 스물네 번째 되는 곳에서 답을 얻었다. 강 아래 나루의 짐꾼 자리였다. 한 손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했다. 짐을 지는 대신 장부를 매기는 자리.

도현이 소식을 듣고 갔을 때, 강철은 그를 문 앞에 세워둔 채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짧게 말했다.

"들어와서 앉게."

그날 강철은 처음으로 차를 내왔다. 왼손으로 따랐고, 반을 흘렸고, 도현은 못 본 척했다.

"내가 무공을 배웠던 건 알고 있나."

"몰랐습니다."

"열여섯에 들었어. 스물여덟에 이 꼴이 됐고." 굵은 손을 흔들었다. "그 뒤로 열여덟 해다. 열여덟 해 동안 나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어. 나는 받기만 했다."

강철이 도현을 보았다.

"자네는 모를 거야. 받기만 하는 열여덟 해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도현은 그 말을 받아 적고 싶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붓을 들지 않았다. 대신 외웠다.

이레 뒤, 관(官)의 서기(書記)가 종합문에 들었다.

젊은 사내였다. 옷이 정갈했고 말투가 공손했으며, 손에 든 장부가 두꺼웠다. 그는 예(禮)를 갖추어 인사했고, 차를 사양했고,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강철이라는 자가 나루에서 일을 시작했지요."

"예. 제가 주선했습니다."

"부양미(扶養米)를 받는 자입니다."

"압니다."

서기가 장부를 폈다. 손끝이 한 줄을 짚었다.

"규정(規定) 제사조. 노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부양미를 받지 못합니다."

도현은 잠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일을 하면 쌀이 끊긴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루에서 받는 샅이 얼마지 아십니까. 부양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압니다."

"그러면 일할수록 굶는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됩니다."

서기의 말투에는 악의가 없었다. 그것이 도현을 더 서늘하게 했다. 이 사내는 강철을 미워하지 않았다. 이 사내는 강철을 알지도 못했다. 그가 아는 것은 규정 제사조와, 그 조항이 적용되는 자의 수효(數效)뿐이었다.

"그러면 규정이 잘못된 겁니다."

서기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것은 제가 답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답합니까."

서기는 대답하지 않았다. 장부를 덮고, 예를 갖추어 인사하고, 나갔다. 마당을 나서다 돌아보며 한마디를 남겼는데, 도현은 그 말을 오래도록 잊지 못했다.

"소협(少俠). 저도 처음에는 그걸 물었습니다."

강철은 나루를 그만두지 않았다.

말하지 않고 계속 나갔다. 도현이 알았을 때는 이미 두 달째였다. 굶은 손으로 장부를 매기며, 아침마다 강가로 걸어 나가며.

"끓입니다." 도현이 말했다. "걸리면 받은 것까지 물어내라 합니다."

"알아."

"아시면서 왜."

강철이 새끼를 꼬던 손을 멈췄다.

"나는 이제 아침에 갈 데가 있어."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네가 준 게 샅인 줄 아나. 아니야. 자네가 준 건 아침이야. 열여덟 해 만에 처음으로 눈 뜰 이유가 생겼어. 그걸 쌀 몇 되랑 바꾸라고?"

"...끓으십니다."

"끓어봤어."

강철이 웃었다. 이번에는 마른 나뭇가지 소리가 아니었다.

"끓는 건 견뎌봐서 알아. 못 견딜 건 그게 아니더라고."

넉 달째에 걸렸다.

부양미가 끓겼고, 넉 달치를 물어내라는 문서가 판잣집에 붙었다. 강철은 나루에서도 잘렸다. 관의 눈치를 본 나루 주인이 손을 떼 것이었다.

도현은 그날 밤 서고에서 문서를 태울 뻔했다.

"내가 관에 가겠습니다."

목 노사는 결재판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가서 뭐라 할 테냐."

"규정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겠습니까."

"죽었느냐."

도현이 멈칫했다. "...아직은."

"그러면 그 말은 못 쓴다." 노사가 붓을 놓았다. "강호에는 하나 알아둘 게 있다. 사람을 상대하는 초식은 규정에 안 듣는다. 규정에는 얼굴이 없어. 화를 낼 상대가 없다는 뜻이야. 네가 관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 네 얼굴만 남고 강철의 얼굴은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노사가 오래 침묵했다. 그러다 서고 안쪽, 자물쇠가 걸린 궤짝을 툇으로 가리켰다.

"저 안에 검이 하나 있다."

도현이 궤짝을 보았다.

"옹호검법(擁護劍法)이라 한다. 사람을 향하지 않는 유일한 검이야. 오직 관을 향해서만 뽑는다."

"...배우겠습니까."

"못 배운다."

"어째서입니까."

"삼 갑자(甲子)다."

노사가 손가락 세 개를 폈다.

"내공이 삼 갑자는 쌓여야 뽑을 수 있어. 그 아래가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검이 뒤로 돌아. 네 문파를 벤다. 군자금(軍資金)이 끊기고, 마흔 명이 굶어. 강철 하나를 살리자고 마흔을 죽이는 셈이지."

"그러면 강철은요."

"기다려야지."

"얼마나요."

"네가 삼 갑자를 쌓을 때까지."

도현이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동안 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목 노사가 처음으로 눈을 들었다. 그 눈에 도현이 읽지 못한 것이 있었다. 훗날 도현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된다. 그것은 같은 질문을 삼십 년 전에 했던 자의 눈이었다.

"그게 우리 무공이 아직 미완인 이유다."

그날 밤 도현은 기록했다.

강철. 마흔여섯. 왼손잡이가 아니었으나 왼손잡이가 되었다.

그는 쌀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아침을 원했다. 우리는 쌀을 줄 수 있고 아침은 줄 수 없다.

규정 제사조는 일하면 쌀을 끊는다. 이 조항을 만든 자는 사람이 샅을 위해서만 일한다고 믿었다. 그것이 이 조항의 유일한 오류다. 그리고 그 오류가 열여덟 해 만에 아침을 얻은 사내에게서 아침을 빼앗았다.

붓이 멈췄다. 다음 줄이 나오지 않았다.

한참 뒤에 도현은 이어 썼다.

나는 오늘 검을 보았으나 뽑지 못했다. 내공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모자란 것은 부끄럽지 않다. 모자란 채로 오늘을 넘기는 것이 부끄럽다.

단전이 뜨거워졌다. 이번 것은 낮고 무겁지 않았다. 뜨겁고 사나웠다. 도현은 그 기운을 억누르지 않았다. 억누르는 법을 몰랐거니와, 억누르고 싶지도 않았다.

훗날 목 노사는 이 밤을 두고 말했다. 저 아이의 병은 그날 밤에 시작되었다고.

문을 나서는데 연화가 서고 문턱에 앉아 있었다.

"몇 시진짜야?"

"모르겠어."

"강칠 어른?"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가 무릎을 안았다. 한참 있다 말했다.

"도현아. 너 이번 달에 몇 명 만났어?"

"...네 명."

"나는 열아홉."

도현이 연화를 보았다. 연화는 도현을 보지 않았다.

"비난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처럼 못 해. 나는 열아홉을 만나면서 아무한테도 무엇이 필요하냐고 못 물어봐. 물으면 못 끝내니까."

"그럼 뭘 물어."

"뭐가 없냐고 물어. 없는 걸 채워주면 되거든. 그건 셀 수 있어."

연화가 일어섰다.

"근데 도현아, 네가 강철 어른 하나 붙들고 녀 달을 보내는 동안 서른일곱 명은 아무도 안 갔어. 그 사람들은 문서에 여백으로 남아 있고. 여백은 아무도 안 세."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네가 맞다고 생각해." 연화가 마당으로 내려서며 말했다. "근데 네가 맞으려면, 너 혼자로는 안 돼."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도현은 그 말의 뜻을 그날 밤에는 알지 못했다. 그가 그 말을 이해한 것은 삼 년 뒤, 자기 단전이 타들어 가는 것을 손도 못 쓰고 지켜보던 겨울이었다.

*— 제 2 장 끝 *

제 3 장

좁은 길

도현은 이레 동안 서고에서 나오지 않았다.

괘짝 속의 검은 뿔을 수 없었다. 삼 갑자가 없었다. 그러나 서고에는 검 말고도 있는 것이 있었다. 관에서 내려온 규정집이었다. 스물두 권, 손가락 두 마디 두께로, 아무도 끝까지 읽은 적이 없다는 물건이었다.

도현은 첫 권부터 읽었다.

사흘째에 눈이 짓물렀다. 닷새째에 글자가 겹쳐 보였다. 엿새째 밤, 제십사권 뒷장 주석에서 도현은 그것을 찾았다.

단, 문파가 시행하는 수련(修鍊) 과정에 참여하여 받는 실비(實費)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도현은 그 한 줄을 세 번 읽었다.

수련. 실비.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붓을 들었을 때 손이 떨렸다. 강철이 나루에서 하던 일은 장부를 매기는 것이었다. 그것을 샅을 받는 노동이라 부르면 규정 제사조에 걸린다. 그러나 종합문이 문서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수련 과정을 열고, 강철이 그 과정에 드는 자가 되고, 나루가 그 수련의 실습처가 되면—

도현은 밤새 셈을 했다. 열두 번을 셈했고 열한 번은 어딘가 걸렸다. 열두 번째에 길이 열렸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한 틈이었다.

새벽에 도현은 마당으로 나갔다. 다리에 힘이 풀려 문지방을 넘다 넘어졌다.

넘어진 채로 웃었다.

"협로보(狹路步)라 한다."

문서를 받아 든 목 노사가 말했다. 표정이 없었다.

"...이름이 있습니까."

"있다. 백 년 전부터 있었어."

"어째서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가르치는 무공이 아니니까. 저마다 제 손으로 찾아내야 하는 보법(步法)이다. 남이 짚어주면 발이 안 붙어."

노사가 문서를 넘겼다. 한 장, 두 장. 넘기는 손이 느렸다.

"제십사권 주석이라. 나는 그건 못 봤다."

도현의 가슴이 뛰었다. 삼십 년을 이 산에 있는 자가 못 본 것을 자기가 찾았다.

"그럼 통합니까."

"통한다."

"그러면—"

"통한다니까." 노사가 문서를 덮었다. "가서 하거라."

노사는 칭찬하지 않았다.

관의 서기(書記)가 다시 왔다.

도현이 문서를 내밀었다. 서기는 오래 읽었다.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제십사권을 직접 펼쳐 대조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제십사권 주석입니까."

"예."

"...이걸 읽으셨군요."

"스물두 권을 읽었습니다."

서기가 잠시 도현을 보았다. 그 눈에 얼핏 무엇인가 스쳤는데, 도현은 그것을 이겼다는 뜻으로 읽었다. 훗날 도현은 그것이 다른 것이었음을 알게 된다.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서기가 장부를 덮었다.

"강철은 부양미를 유지합니다. 나루 실비는 소득으로 잡지 않겠습니다."

도현이 예를 갖추었다. 서기도 예를 갖추었다. 마당을 나서다 서기가 돌아보았다.

"소협."

"예."

"강변에 사는 자가 몇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사백열둘입니다. 그중 부양미를 받으면서 일하고 싶어 하는 자가, 제 장부로는 이백 남짓 됩니다."

도현의 입이 마르기 시작했다.

"소협께서는 오늘 한 사람을 구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십 년간 못 한 일입니다." 서기가 잠시 말을 골랐다. "그런데 제십사권 주석은 한 사람씩만 통과합니다. 문파가 수련 과정을 열고, 실습처를 구하고, 문서를 녀 장씩 쓰고. 한 사람에 녀 달. 이백이면 몇 해입니까."

"..."

"저는 그 셈을 오래전에 해봤습니다. 그리고 셈을 하고 나서, 저는 소협처럼 뛰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기가 나갔다.

도현은 마당에 오래 서 있었다.

강철은 아침에 강변으로 나갔다.

첫날 아침, 도현은 멀리서 그 뒷모습을 보았다. 굵은 손을 소매에 넣고, 왼손으로 문서 뭉치를 안고, 다리를 조금 절며 걷는 사내를.

그 뒷모습을 보는데 목이 메었다. 도현은 그때 자기가 무공을 익혔다고 믿었다.

한 달 뒤, 강철이 도현을 불렀다.

새끼줄 한 다발을 내밀었다. 왼손으로 쏜 것이었다. 가지런하지 않고 굵기가 들쭉날쭉했다.

"팔지도 못할 물건이야."

"..."

"근데 내가 만든 거다. 열여덟 해 만에 처음으로."

도현이 새끼줄을 받았다.

"자네한테 물을 게 하나 있어."

"예."

"나 하나 살리는 데 녀 달 걸렸지."

"...예."

"강변에 나 같은 사람이 몇인 줄 아나."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강철이 굵은 손으로 강 쪽을 가리켰다. 판잣집들이 물가를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저기 김가도 손이 성치 않아. 저 아래 박씨는 눈이 어둡고. 그 옆집은 애가 셋인데 애비가 없어. 다들 아침에 갈 데가 없다."

"..."

"자네가 녀 달에 하나씩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몇이나 되겠나."

도현의 손에서 새끼줄이 미끄러졌다.

"나쁘게 듣지 말게. 나는 자네한테 고마워. 밤에 자다 깨서 고마워한 적도 있어." 강철이 마당을 보았다. "그냥, 자네가 그걸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날 밤 서고에서 도현은 처음으로 기록하지 못했다.

붓을 들었으나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다. 오늘 그는 이겼다. 강철은 아침을 얻었고 쌀도 잃지 않았다. 그런데 붓이 나가지 않았다.

문턱에 연화가 앉았다.

"들었어. 제십사권 주석."

"응."

"대단해. 진짜로."

"..."

"근데 하나 물어봐도 돼?" 연화가 무릎을 안았다. "그거 다음 사람한테도 써줄 거야?"

"쓰지."

"마흔 번?"

도현이 연화를 보았다.

"강변만 사백열둘이라며." 연화의 목소리가 낮았다. "너 사백열두 번 할 거야?"

"...해야지."

"그러다 죽어."

"안 죽어."

"도현아." 연화가 한숨을 쉬었다. "너 지금 뭐가 제일 무서운지 알아? 네가 해낸다는 거야. 오십 번쯤은 진짜로 해낼걸. 너는 그런 놈이니까. 근데 오십 번 하고 나면 남은 사백 명이 보이겠지. 그때 네가 뭘 할 것 같아?"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기를 태워." 연화가 일어섰다. "우리 문파 사람들 그렇게 없어져. 나쁜 놈들이 없애는 게 아니야. 좋은 놈들이 스스로 타는 거야."

문턱을 내려서다 연화가 덧붙었다.

"그러니까 검을 배우라는 거야, 노사님이."

"...뭐?"

"협로보는 한 명씩이잖아. 검은 한 번에 이백 명이고."

도현은 그 밤에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목 노사가 서고에 든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쓰지 않았구나."

"...쓸 말이 없습니다."

"이겼는데?"

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노사님. 저는 오늘 이긴 겁니까, 도망친 겁니까."

노사가 꺾꽂 앞에 가서 앉았다. 자물쇠를 손끝으로 만졌다.

"협로보는 좋은 보법이다. 나도 평생을 그 보법으로 살았어. 오늘 밤에도 그 걸음으로 열 명쯤은 넘겼을 게다."

"..."

"그런데 그 걸음의 대가가 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잘 빠져나간 자는 두 번 다시 싸우지 않는다."

노사가 자물쇠에서 손을 떼었다.

"규정이 사람을 죽이는데, 나는 규정을 고치지 않고 사람만 빼냈다. 삼십 년을 그렇게 했어. 그동안 규정은 한 글자도 안 바뀌었다. 오히려 늘었지. 왜냐하면 아무도 안 고쳐도 어떻게든 굴러갔거든. 나 같은 자들이 밤새 틈을 찾아냈으니까."

도현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제가 오늘 한 일이..."

"강철을 살렸다. 그건 사실이다. 그 사실은 아무도 못 지운다." 노사가 도현을 보았다. "그리고 규정 제사조를 한 해 더 살렸다. 그것도 사실이야."

"...어떻게 둘 다 사실입니까."

"그게 우리 무공이다."

노사가 일어섰다. 문을 나서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다.

"오늘 걸 쓰거라. 이긴 것도 쓰고 도망친 것도 써. 둘 다 안 쓰면 네 단전에 남는 게 없다."

도현은 붓을 들었다.

강철. 아침을 되찾았다. 제십사권 주석 덕이다.

나는 오늘 좁은 길을 걸었다. 좁은 길은 한 사람씩 지나간다. 강변에는 사백열둘이 산다.

나는 오늘 이겼고, 동시에 규정 제사조를 한 해 더 살려두었다.

이 두 줄을 나란히 적는 것이 오늘 내가 배운 전부다.

붓을 놓았다. 단전이 조용했다. 뜨겁지도 사납지도 않았다. 다만 깊은 데서 무엇인가 한 겹 내려앉는 느낌이 있었다.

도현은 그것이 좋은 징조인 줄 알았다.

이레 뒤, 무림맹(武林盟)에서 파발(擺撥)이 왔다.

마당에 문파 전원이 모였다. 장로가 두루마리를 폈다.

"관이 삼년지험(三年之驗)의 시행을 알렸다. 삼 년 뒤 봄, 어사(御史)가 내려온다."

수군거림이 일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장로의 목소리가 굳었다. "지금까지는 문파의 무공을 보았으나, 이번부터는 수효를 본다. 몇 명을 만났고, 몇 번 만났고, 몇을 고쳤는지. 그 숫자로 군자금이 정해진다."

"고쳤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물었다.

"셀 수 있게 나아진 것을 말한다."

"셀 수 없이 나아진 것은요."

장로는 대답하지 못했다.

두루마리 끝에는 붉은 인장이 하나 더 찍혀 있었다. 도현이 처음 보는 문양이었다. 옆에 선 늙은 문도(門徒)가 그것을 보고 낮게 뇌까렸다.

"...실적교(實績敎)로군."

"무엇입니까, 그게."

"강호 서쪽에서 일어난 무리다. 교리가 하나뿐이야."

늙은 문도가 침을 삼켰다.

"셀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도현은 그날 마당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느꼈다.

하나는 분노였다. 다른 하나는 자신(自信)이었다. 삼 년이면 충분하다고, 사백열둘을 다 하지는 못해도 백은 하겠다고, 그러면 숫자로도 지지 않겠다고.

그는 아직 몰랐다. 그 두 가지가 섞이면 무엇이 되는지를.

훗날 강호에서는 그것을 주화입마(走火入魔)라 불렀다.

— 제 3 장 끝. 제 1 부 입문 완(完)

제 2 부 주화입마(走火入魔)

제 4 장

아흔세 개의 아침

삼 년째 겨울, 강호는 그를 협로협(狹路俠)이라 불렀다.

좁은 길의 협객. 규정의 틈으로 사람을 빼내는 자. 강변 사백열둘 가운데 아흔셋이 그의 손을 거쳐 아침을 얻었다. 종합문 마당에는 다른 문파에서 온 문도들이 줄을 섰다. 협로보를 배우러 온 자들이었다.

도현은 그것을 문서로 만들었다.

제십사권 주석 활용 요령 — 전(全) 열두 장. 실습처 구하는 법, 수련 과정 여는 법, 서기가 묻는 열네 가지 질문과 답변, 걸리는 지점 여덟 곳. 도현은 그것을 베껴 나눠주었다. 값을 받지 않았다. 밤에 등불 아래서 손수 베꼈다.

강호 서른 문파가 그 문서를 가졌다. 그해 겨울, 강호 전체에서 사백명 가까이가 아침을 얻었다.

문파 안에서는 그를 다르게 불렀다.

불면수사(不眠秀士).

잠들지 않는 사내라는 뜻이었다. 별호(別號)를 붙인 자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붙이지 않았다.

"밥은."

"먹었습니다."

"언제."

도현은 답하지 못했다. 목 노사가 결재판 너머로 그를 보았다. 도현의 눈 밑이 검었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세 달 사이에 옷이 한 치는 헐거워졌다.

"이번 달에 몇을 만났느냐."

"서른하나입니다."

"많구나."

"모자랍니다." 도현이 문서를 넘겼다. "강변에만 아직 삼백열아홉이 남았습니다. 어사가 봄에 옵니다. 그전에 백을 채우면 수효로도 지지 않습니다."

"백을 채운다."

"예."

"채우고 나면?"

도현이 잠시 멈칫했다.

"...이백을 채워야지요."

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결재판을 내려놓고 서고 안쪽 궤짝을 한 번 보았다. 자물쇠는 삼 년 전 그대로였다.

"도현아."

"예."

"요새 기록은 몇 줄이나 쓰느냐."

도현이 대답하지 못했다.

기록이 짧아진 것은 두 해 전부터였다.

처음에는 열 줄이었다. 만난 사람의 말과, 방의 냄새와, 그가 무엇을 원했는지와, 도현 자신이 무엇을 잘못 짚었는지가 적혔다. 강철의 기록은 스물세 줄이었다.

그다음 해에는 다섯 줄이 되었다. 만난 사람이 늘었으므로 어쩔 수 없었다.

올해는 한 줄이었다.

이월 초삼일. 김가. 실습처 확보. 서기 통과.

이월 초오일. 최가. 부양미 유지. 완료.

이월 초칠일. 박가. 완료.

도현은 그것이 효율이라 생각했다. 쓰는 시간을 아껴 한 사람을 더 만나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아흔셋을 다섯 줄씩 쓰면 사백예순다섯 줄이다. 그 시간이면 열 사람을 더 통과시킬 수 있었다.

그는 자기 단전이 어디인지를 잊었다.

연화를 마주친 것은 서고 복도에서였다.

연화의 책상에 낯선 문서가 펼쳐져 있었다. 붉은 인장. 도현이 삼 년 전 마당에서 보았던 문양.

"...그거 실적교 문서 아니야?"

"응."

"왜 봐."

"읽어봐야 알지."

도현이 문서를 낚아채듯 집었다. 연화가 막지 않았다. 첫 장에 표가 하나 있었다. 세로로 문파 이름, 가로로 숫자. 만난 수효, 만난 횟수, 고친 수효. 칸이 반듯했고 빈 데가 없었다.

도현은 그 표를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이 한 줄에 멎었다.

종합문. 고친 수효 아흔셋. 서른 문파 중 일위.

가슴 어딘가가 뜨끈해졌다. 도현은 그것이 부끄러웠고, 부끄러운 만큼 뜨거웠다.

"기분 좋지." 연화가 말했다.

"...아니야."

"좋아 보이는데."

"연화야." 도현이 문서를 내려놓았다. "이거 마교 물건이야. 이거 읽으면 물들어."

연화가 그를 보았다. 오래 보았다.

"도현아. 너 아흔셋 세면서, 왜 나한테 화를 내?"

도현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너 요새 사람 이름으로 안 세고 숫자로 세." 연화의 목소리는 낮았고 떨리지 않았다. "그게 실적교랑 뭐가 달라? 저쪽은 숫자로 세면서 숫자로 센다고 말이라도 해. 너는 숫자로 세면서 사람을 센다고 해."

"..."

"나는 저 문서 읽어서 저쪽 논리를 알려는 거야. 이기려면 알아야 하니까." 연화가 문서를 접었다. "근데 너는 저거 안 읽고도 벌써 저쪽처럼 됐어."

도현은 그날 밤 서고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자기 기록을 펼쳐 보지 않았다.

무너진 것은 이월 열이레였다.

아흔넷째 사람의 집이었다. 강변 끝, 지붕이 반쯤 내려앉은 집. 도현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안에는 노파가 아니라 사내가 앉아 있었다. 마흔쯤 되었고 눈이 어두웠다.

도현이 문서를 폈다.

"박가 어르신 댁 아닙니까."

"...맞소."

"실습처 건으로 왔습니다. 나루 쪽에 자리가 하나—"

"소협."

사내가 도현의 말을 끊었다.

"나요."

도현이 문서에서 눈을 들었다.

"나요. 박가."

도현의 손에서 문서가 흔들렸다. 그는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다. 열흘 전에. 그날 이 방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고, 실습처를 알아보겠다고 했고, 돌아오는 길에 다음 사람의 집으로 갔다.

이월 초칠일. 박가. 완료.

한 줄이었다. 그 한 줄에는 이 사내의 얼굴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괜찮소."

"어르신 댁인 줄 알고—"

"괜찮대도." 사내가 손을 저었다. "바쁘신 줄 아오. 강변 사람들이 다 소협 얘기를 하오. 잠도 안 자고 뛰어다닌다고."

도현은 그 말에 무릎이 꺾일 뻔했다.

화를 냈으면 나았을 것이다. 이 사내가 자기를 나무랐으면, 도현은 사죄하고 고쳤을 것이다. 그런데 사내는 이해해 주었다. 이해받는 것이 그토록 아플 줄 몰랐다.

돌아 나오려는데 사내가 불렀다.

"소협."

"예."

"저번에 못 한 말이 있는데."

도현이 멈춰 섰다.

"나는 일자리보다도... 아니오. 됐소. 바쁘신데."

"...말씀하십시오."

"됐소. 다음에 하지."

도현은 그 방을 나섰다.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무엇이 필요하냐고, 그는 열흘 전에 묻지 않았다. 오늘도 묻지 못했다. 삼 년 전 첫 실패에서 배운 단 하나를, 그는 아흔셋을 통과시키는 동안 잃어버렸다.

그날 밤 도현은 서고에서 붓을 들었다.

이월 열이레. 박가.

거기서 손이 멈췄다.

다음 줄이 나오지 않았다. 사내의 얼굴을 떠올리려는데 떠오르지 않았다. 눈이 어두웠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목소리도, 방의 냄새도, 그가 무엇을 말하려다 삼켰는지도.

도현은 지난 기록을 펼쳤다.

한 장, 두 장, 열 장.

완료. 완료. 통과. 완료.

이름과 날짜와 결과. 사백 줄이 넘게 이어졌다. 도현은 그 줄들을 손가락으로 짚어 내려갔다. 짚는 데마다 얼굴이 없었다. 아흔세 개의 이름 중에 얼굴이 떠오르는 것은 셋뿐이었다. 그중 하나는 강철이었고, 강철의 기록은 삼 년 전 것이었다.

도현의 손끝이 떨렸다.

떨림이 손목으로 올라왔고, 팔뚝으로 올라왔고, 어깨를 지나 가슴으로 들어왔다. 단전 어딘가에서 무엇인가 역류했다. 삼 년 동안 밀어 넣기만 하고 한 번도 가라앉히지 않은 것들이, 한꺼번에 거슬러 올랐다.

숨이 막혔다.

붓이 먹을 흘리며 종이 위로 굴렀다. 도현은 책상을 짚으려다 놓쳤다.
등불이 넘어졌다.

목 노사가 발견한 것은 새벽이었다.

불은 종이 몇 장을 태우고 꺼져 있었다. 도현은 그 옆에 엎드려 있었고,
이마가 뜨거웠으며, 입술이 하얗다.

노사는 그를 안아 눕히고, 등을 짚어 맥을 보았다. 그리고 오래 눈을
감았다.

사흘 만에 도현이 깨어났다.

"...노사님."

"깼구나."

"제가 왜."

"주화입마다."

도현이 몸을 일으키려다 도로 누웠다. 팔에 힘이 없었다.

"제 단전이..."

"탔다. 다는 아니고, 절반쯤."

"..."

"고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느냐."

"모릅니다."

"나도 모른다." 노사가 그의 머리맡에 앉았다. "고친 자를 몇 못 봤어."

도현의 눈에서 물이 흘렀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노사님. 저는... 너무 많이 만나서 이렇게 된 겁니까."

노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러면요."

노사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다. 그러다 도현의 기록을 집어 들었다.
불에 그슬린 귀통이가 부스러졌다.

"너는 아무도 안 만났다."

도현이 노사를 보았다.

"아흔셋을 통과시켰지. 그건 사실이야. 그런데 너는 그 아흔셋 중에
몇을 만났느냐."

"..."

"셋이라고 했지. 얼굴이 떠오르는 게 셋이라고."

도현의 입술이 떨렸다.

"만난다는 건 얼굴을 안는 일이다. 얼굴은 무거워. 하나 안으면 어깨가
쳐지고, 열을 안으면 걸음이 느려지지. 그래서 사람은 자연히 세계
되어 있어. 세면 가벼우니까." 노사가 기록을 내려놓았다. "너는
무거운 걸 견디려고 세기 시작했다. 그게 네 병이야."

"...그러면 제가."

"실적교의 교리가 뭐라고 했지."

도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셀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는 삼 년 동안 그 교리로 살았다."

방 안이 조용했다. 창밖에 눈 녹는 소리가 났다.

"마교와 싸우겠다고 뭘 자가, 마교의 심법(心法)으로 단전을 채웠어." 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서 탄 거다. 몸에 안 맞는 걸 넣었으니까."

도현은 천장을 보았다. 오래 보았다.

"노사님."

"말해라."

"저는 아흔세 개의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없던 일이 됩니까."

노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건 남는다. 강철은 지금도 아침에 강가로 나가. 그건 네가 한 일이고, 아무도 못 지운다."

"그런데 왜 저는—"

"둘 다 사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도현이 눈을 감았다. 삼 년 전 그 밤이 떠올랐다. *이긴 것도 쓰고 도망친 것도 써라.*

"네가 아흔셋을 살린 것도 사실이고, 그 아흔셋의 얼굴을 잃은 것도 사실이다. 우리 무공은 늘 두 개다. 하나만 쥐려는 자가 타는 거야."

노사가 일어섰다. 문 앞에서 돌아보았다.

"도현아. 이제 어떻게 할 테냐."

도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봄이 오기 전에 도현은 짐을 쌌다.

등짐 하나. 삼 년 전 들고 온 그것이었다. 안에는 옷 두 벌과, 불에 그슬린 기록 뭉치와, 강철이 왼손으로 쏜 새끼줄 한 다발이 들어 있었다.

마당에 눈이 남아 있었다.

연화가 산문 앞에 서 있었다. 말리지 않았다. 다만 물었다.

"어디 가."

"모르겠어."

"언제 와."

"...모르겠어."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엇인가 말하려다 삼켰다.

도현이 산문을 나섰다. 열 걸음쯤 갔을 때 뒤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현아."

돌아보았다.

"어사는 봄에 와."

"...알아."

"내가 남아서 막아볼게."

도현은 그 말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연화가 무엇을 각오하고 남는지, 남아서 무엇이 되는지를.

그가 그 말의 뜻을 안 것은 두 해 뒤, 무림맹 대전에서 붉은 인장이
찍힌 옷을 입은 연화를 마주 섰을 때였다.

*— 제 4 장 끝 *

제 3 부 파문(破門)의 시간

제 5 장

받는 법

문파를 나온 자에게는 이름이 없다.

강호에는 그런 말이 있었다. 도현은 그것이 비유인 줄 알았는데, 산을 내려와 보니 사실이었다. 종합문의 이름을 대지 못하니 아무도 그를 들이지 않았다. 협로협이라는 별호를 아는 자는 강변에나 있었고, 강변은 그가 다시 갈 수 없는 곳이었다.

여든 날을 걸었다.

가진 돈은 스무 날 만에 떨어졌다. 그다음은 품을 팔았다. 단전이 반쯤 탄 몸이라 하루 일하면 이틀을 앓았다. 예순 날째부터는 굶는 날이 먹는 날보다 많았다.

여든 날째, 이름 모를 저잣거리 어귀에서 도현은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낮았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팔이 말을 듣지 않았다.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늙은 여자가 등을 보이고 앉아 무언가를 다듬고 있었다.

"...여기가."

"깻나."

노파가 돌아보았다. 얼굴이 온통 주름이었고 손등이 갈라져 있었다. 나물 다듬던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더니 그릇을 하나 밀어 놓았다. 죽이었다. 쌀알이 셀 만큼 들어 있었다.

"먹어."

도현이 그릇을 보았다. 방 안을 둘러보았다. 세간이라 할 것이 없었다. 이불 한 채, 숟 하나, 나물 광주리 둘. 벽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어르신."

"응."

"이거 어르신 드실 것 아닙니까."

"먹으라니까."

"저는 됐습니다." 도현이 몸을 일으켰다. 어지러워 벽을 짚었다. "폐를 끼칩니다. 가겠습니다."

노파가 도현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앉게."

목소리가 낮았는데 도현의 무릎이 저절로 꺾였다.

"자네 사흘을 누워 있었어. 그동안 내가 죽을 세 번 꿈였고 자네는 세 번 다 안 먹었네. 그러고 지금 가겠다고?"

"..."

"내 것을 안 먹겠다는 건 좋아. 그런데 이미 사흘 잤잖나. 그건 어쩔 텐가."

도현이 대답하지 못했다.

"먹어. 먹고 나서 가든지."

도현은 그릇을 비웠다.

비우고 나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노파의 손이 멈췄다. 나물 한 줌을 광주리에 놓고, 도현을 오래 보았다.

"자네 지금 뭐라 했나."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고쳐."

"예?"

"죄송하다는 건 자네가 잘못을 했다는 말이야." 노파가 광주리를 밀어 놓았다. "내가 자네한테 죽 한 그릇 줬는데, 자네가 잘못을 했으면 그게 무슨 뜻이 되나. 내가 자네한테 잘못 준 게 되잖아."

도현이 눈을 들었다.

"고맙다고 해."

"..."

"해봐."

도현의 목이 막혔다.

세 번을 삼키고 나서야 소리가 나왔다.

"고맙습니다."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야."

이레가 지나도록 도현은 그 방에 있었다.

몸이 낫는 대로 나가려 했으나 나갈 때마다 노파가 붙들었다. 도현은 대신 일을 찾았다. 물을 길었고 아궁이에 불을 넣었고 나물을 다듬으려 했다.

노파가 나물 광주리를 뺏았다.

"손대지 마."

"...돕겠습니다."

"안 돼."

"어째서입니까."

"자네가 지금 나물을 다듬으면 그게 값는 게 되잖아." 노파가 광주리를 무릎에 놓았다. "값아버리면 자네는 아무것도 안 받은 게 돼. 나는 자네한테 받으라고 준 거지, 값으라고 준 게 아니야."

도현이 멍하니 노파를 보았다.

"자네 그 얼굴 내가 아네." 노파가 웃었다. 이가 몇 개 없었다. "받는 게 죽기보다 싫은 얼굴이지. 주는 것만 해본 사람들이 다 그래."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사십 년을 받았거든."

노파가 벽에 등을 기댔다.

"나도 문파 신세를 졌지. 자네 같은 젊은 협객들이 왔다 갔어. 몇이나 왔는지 세지도 못해. 쌀 주고, 옷 주고, 거울에 연탄 주고.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었네."

도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르신."

"응?"

"...그때, 어떠셨습니까."

노파가 잠시 말이 없었다.

"고마웠지."

"..."

"그리고 부끄러웠어."

도현이 숨을 멈췄다.

"그 둘이 같이 오더라고. 아무도 나한테 부끄러우라고 안 했는데, 받을 때마다 조금씩 작아졌어. 사십 년을 그러니까 나중에는,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몸이 먼저 굽더라고." 노파가 자기 등을 톡 쳤다. "여기가 이렇게 된 게 짐 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야. 받느라 그런 거야."

방 안이 조용했다.

"협객들은 그걸 몰라. 알 수가 없지. 준 적만 있으니까."

도현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흔셋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아흔셋이 문 두드리는 소리에 어떻게 몸을 굽혔을지는, 이제야 보였다.

열흘째 되던 날, 도현이 물었다.

"어르신.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삼 년 만에 제대로 하는 물음이었다. 도현은 그 물음을 꺼내는 데 열흘이 걸렸다.

노파가 나물을 다듬다 말고 그를 보았다.

"자네 그걸 왜 묻나."

"...필요한 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뭐라 대답해야 하나."

도현이 눈을 깜빡였다.

"필요하신 걸 말씀하시면—"

"자네가 줄 수 있는 게 뭔데."

"..."

"내가 그 목록을 아나? 몰라. 그러니 자네 눈치를 봐야지." 노파가 나물을 내려놓았다. "쌀은 주려나. 옷은 주려나. 너무 큰 걸 말하면 자네가 곤란하겠지. 그럼 곤란하지 않을 만한 걸 골라서 말해야 해. 사십 년을 그렇게 골라 말했네."

도현의 입술이 말랐다.

"그러면... 뭘 물어야 합니까."

노파가 도현을 오래 보았다.

그리고 되물었다.

"자네는 무엇이 필요한가."

도현의 입이 열렸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는 몰랐다. 밥이 필요한 것도 같았고 잠이 필요한 것도 같았으나,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다. 진짜를 말하려니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안다 해도 이 가난한 노파에게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노파가 곤란할 테니까. 곤란하지 않을 만한 것을 골라야 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 도현의 몸이 굳었다.

"...어르신."

"응."

"제가 지금."

"알아."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물음을 받으면 그렇게 돼."

도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저는 그걸 아흔세 번 물었습니다."

"그랬겠지."

"묻는 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안 묻는 자들을 비웃었습니다."

"안 묻는 것보단 낫지." 노파가 다시 나물을 집었다. "근데 묻는 걸로 끝은 아니야."

"...그럼 뭐가 끝입니까."

"끝은 없고." 노파가 손을 놀리며 말했다. "그냥 같이 살면 돼."

"..."

"묻지 말고 옆에 있어 봐. 오래 있어 보면 나와. 물어서 나오는 건 그 사람이 골라준 거고, 살아서 나오는 게 진짜야."

도현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보름째 되던 날, 도현은 붓을 구했다.

종이는 없어서 노파가 나물을 싸던 헌 종이 뒷면을 썼다. 등불도 없어서 문을 열어놓고 달빛으로 썼다.

첫 줄을 쓰는 데 오래 걸렸다.

나는 오늘 얻어먹었다.

쓰고 나니 얼굴이 뜨거웠다. 도현은 그 문장을 지우려다 두었다. 지우면 안 되는 문장 같았다.

죽 한 그릇이었다. 쌀알을 셀 수 있었다. 이것을 준 이는 나보다 가난하다.

나는 고맙다는 말을 하는 데 세 번을 삼켜야 했다. 왜 그토록 어려웠는지 오늘에야 알았다. 나는 삼 년 동안 받아본 적이 없다. 받는 법을 잊은 자가, 주는 법만은 안다고 믿었다.

나는 아흔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 물음이 그들에게 무엇을 시켰는지를 오늘 알았다. 그들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짐작해야 했고, 나를 곤란하게 하지 않을 만한 것을 골라야 했다. 나는 그 고름을 두고 그들의 뜻이라 적었다.

붓이 멈췄다. 도현은 오래 앉아 있다가 마지막 줄을 썼다.

나는 오늘 처음으로, 도움받는 자리에 앉아 보았다. 그 자리는 낮았다.

붓을 놓았을 때 단전이 미지근해졌다.

도현은 놀라 자기 배를 짚었다. 삼 년 동안 그를 태웠던 뜨거움이 아니었다. 밀어 넣은 것도 아니었다. 어디선가 흘러들어 와 낮은 데 고이는 느낌이었다.

밖에서 노파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은 안 자고 뭘 하나."

"...글을 씁니다."

"무슨 글."

"오늘 어르신께 죽 한 그릇 얻어먹은 걸 씁니다."

노파가 코웃음을 쳤다.

"그게 글이 되나."

"됩니다."

도현이 웃었다. 삼 년 만에 처음이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노파가 처음으로 도현에게 부탁을 했다.

"자네."

"예."

"글 읽을 줄 안다고 했지."

"압니다."

노파가 꺾꽂이 밑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손때가 묻어 반들거렸다.
여러 번 폼다 접은 자국이 있었다.

"이거 좀 읽어주게."

도현이 종이를 폼다. 관에서 온 문서였다. 녀 달 전 날짜였다.

"...녀 달을 갖고 계셨습니까."

"글을 모르니까."

"물어보시지 그러셨습니까."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지." 노파가 무릎을 안았다. "저잣거리
사람들한테 보이면 다 알게 되잖나. 이게 무슨 종이인지."

도현은 그 말에 목이 메었다.

문서를 읽었다. 부양미가 다음 달부터 줄어든다는 통지였다. 이유는
노파가 나물을 팔아 얻은 소득이 잡혔기 때문이었다. 한 달에 스무 날,
새벽에 나가 저녁에 돌아오는 일이었다.

규정 제사조였다.

도현의 손이 떨렸다.

"...뭐라 하나."

"어르신."

"응."

"나물 파신 게 잡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쌀이 줄어듭니다."

노파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짧게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아셨습니까."

"글은 몰라도 눈치는 있네." 노파가 광주리를 보았다. "그만두면 되지 뭐."

"어르신."

"응?"

"그만두면 아침에 갈 데가 없어집니다."

노파가 도현을 보았다. 눈이 조금 커졌다.

도현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뒤늦게 알았다. 강철의 말이었다. 삼 년 전 판잣집 마당에서, 굵은 손으로 강을 가리키며 하던 말.

단전이 뜨거워졌다.

이번에는 사납지 않았다. 낮고, 무겁고, 가라앉는 뜨거움이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와서 그건 왜 묻나."

"알아야겠습니다."

노파가 잠시 도현을 보다가 대답했다.

"순덕이네. 마순덕(馬順德)."

도현이 종이를 접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삼 년 전 서고에서 규정집 스물두 권을 펼치던 그 얼굴이 되었다.

"마순덕 어르신." 도현이 말했다. "제가 좁은 길을 하나 압니다."

그 밤, 저잣거리 어귀로 파발이 하나 들어왔다.

종합문에서 온 것이었다. 도현을 찾는 데 두 달이 걸렸다고 했다.
파발꾼은 봉함(封緘)을 건네고 답을 기다리지 않고 떠났다.

도현이 봉함을 뜯었다.

목 노사의 글씨였다. 석 줄뿐이었다.

어사가 다녀갔다. 종합문은 서른 문파 중 스물여덟 위다.

군자금이 반으로 줄었다. 문도 열하나가 산을 내려갔다.

연화가 붉은 옷을 입었다.

도현은 그 종이를 손에 든 채 오래 서 있었다.

달이 밝았다.

— 제 5 장 끝

제 6 장

스스로 읽는 자

고을 관아(官衙)는 저잣거리에서 십 리 밖에 있었다.

도현은 새벽에 나섰다. 마순덕의 문서를 품에 넣고, 삼 년 전 서고에서 외운 것들을 걸으며 되짚었다. 제십사권(第十四卷) 뒷장 주석(註釋). 수련 과정에 참여하여 받는 실비는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서기가 묻는 열네 가지 질문과, 그 답과, 걸리는 지점 여덟 곳.

몸은 성치 않았으나 걸음이 가벼웠다.

관아의 서기는 젊었다. 도현이 문서를 내밀고 조항을 짚었을 때, 서기는 잠시 그를 보다가 규정집(規定集)을 꺼냈다. 제십사권을 폈다. 뒷장을 넘겼다.

그리고 도현에게 보였다.

주석이 없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작년 것에는 있었습니다."

"삭제(削除)되었습니다. 지난 시월(十月)입니다."

도현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어째서입니까."

서기가 규정집을 덮었다. 젊은 얼굴에 미안함이 스쳤다.

"소협께서는 강호 분이신 듯한데."

"...예."

"그 주석으로 빠져나간 수효가 사백이 넘었습니다. 서른 문파에서 일시예요." 서기가 조심스레 말했다. "관에서 조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문파가 요령을 적은 문서를 만들어 돌렸다고 하더군요. 열두 장짜리라 들었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문서를 쓴 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자 때문에 틈이 막혔지요."

십 리를 걸어 돌아오는 데 하루가 걸렸다.

여섯 번을 주저앉았다. 단전이 아파서가 아니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도현은 걸으면서 셈을 했다.

아흔셋. 강철을 포함해 그가 통과시킨 수효다. 사백. 그의 문서로 서른 문파가 통과시킨 수효다. 그 사백구십셋이 시월부터 다시 규정 제사조(第四條) 아래로 돌아갔다.

강철은 나루를 잃었을 것이다. 다시 아침에 갈 데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 길을 갈 자는 아무도 없다. 문이 닫혔다. 문을 닫은 것은 관이지만, 관의 손에 열쇠를 쥐여준 것은 도현이었다.

나는 오늘 이겼고, 동시에 규정 제사조를 한 해 더 살려두었다.

삼 년 전 자기가 쓴 문장이 떠올랐다. 그는 그때 두 개를 다 적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셈이 틀렸다. 세 번째가 있었다. 그는 규정 제사조를 한 해 더 살려두었을 뿐 아니라, 그 조항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저장거리 어귀에 닿았을 때 해가 졌다.

순덕은 아직 자지 않고 있었다.

"늦었네."

도현이 문지방에 주저앉았다. 신을 벗지 못했다.

"...어르신."

"응."

"길이 막혔습니다."

순덕이 잠시 말이 없었다.

"막힌 게 아니라 원래 없던 거겠지."

"있었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삼 년 전에 제가 찾아서, 제가 문서로 만들어서, 서른 문파에 돌렸습니다. 사백 명이 그 길로 나갔습니다."

"그럼 잘한 거 아닌가."

"관이 막았습니다." 도현이 얼굴을 감쌌다. "너무 많이 나가니까 막았습니다. 제가... 제가 안 돌렸으면 지금도 열려 있었을 겁니다."

방 안이 조용했다.

"그러면 어르신도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강철 형님도 그대로 계셨을 거고요. 제가—"

"자네."

순덕의 목소리가 낮았다.

"지금 누구 걱정을 하나."

도현이 손을 내렸다.

"...예?"

"내 걱정을 하나, 자네 걱정을 하나."

"...어르신 걱정입니다."

"아니야."

순덕이 무릎을 고쳐 앉았다.

"자네 지금 나 안 보네. 아까부터 한 번도 안 봤어."

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순덕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주름과 갈라진 손등과, 이가 몇 개 없는 입과, 그를 사흘 동안 지킨 눈이.

"자네가 아까부터 세고 있는 건 사백구십셋이야. 그건 숫자지 사람이 아니고." 순덕이 말했다. "숫자가 무너지니까 자네가 무너지는 거야. 나는 아직 여기 있는데."

도현의 입술이 떨렸다.

"어르신. 저는 정말로—"

"알아. 자네 좋은 사람이야. 나 사십 년 동안 좋은 사람 많이 봤어. 자네가 제일 좋은 축이야." 순덕이 손을 뻗어 도현의 어깨를 짚었다.

"근데 좋은 사람들이 꼭 그러더라고. 자기가 쌓은 게 무너지면 우리보다 자기가 더 아파해. 그럼 우리가 위로를 해야 돼."

도현이 숨을 삼켰다.

"오늘도 내가 자네 위로하고 있잖나."

그날 밤, 도현은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새벽에야 붓을 들었다.

나는 오늘 사백구십셋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마주 앉은 사람은 하나였고, 나는 그 하나의 얼굴을 저녁 내내 보지 않았다.

나는 아흔셋의 얼굴을 잃은 뒤에도, 아직 세는 버릇을 못 고쳤다.

그리고 오늘, 도움받는 자가 나를 위로했다.

붓이 멈췄다.

한참 뒤에 도현은 마지막 줄을 썼다.

어르신은 넉 달 동안 그 문서를 품고 계셨다. 글을 몰라서다. 나는 그것을 읽어드렸다. 읽어드리는데 반 각(半刻)이 걸렸다.

나는 삼 년 동안 규정집 스물두 권을 읽었다. 그런데 그 규정이 걸리는 사람들 중에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었다.

도현이 붓을 놓았다.

그리고 한동안 그 마지막 줄을 들여다보았다.

이레 뒤, 도현은 저잣거리 한복판에 멍석을 폈다.

순덕이 나물 광주리를 옆에 놓고 앉았다. 도현은 그 옆에 규정집을 놓았다. 관아에서 베껴 온 것이었다. 필사(筆寫)하는 데 닳새가 걸렸고, 서기가 문길래 사실대로 말했더니 종이를 대주었다.

"뭐 하는 겐가." 지나던 사내가 물었다.

"글을 읽어드립니다."

"샀은."

"없습니다."

사내가 미심쩍은 얼굴로 갔다. 그날 온 사람은 둘이었다.

이레째에 아홉이 되었다.

한 달째에 서른이 넘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종이를 들고 왔다. 께짝 밑에 넣어둔 것, 벽에 붙어 있던 것을 뜯어 온 것, 자식이 두고 간 것. 어떤 것은 삼 년이 지난 것이었고 어떤 것은 이미 기한이 넘은 것이었다. 다들 그것이 무슨 종이인지 몰랐고,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몰랐다.

도현은 읽어주었다.

그리고 읽어준 다음에, 처음에는 하지 않던 것을 하기 시작했다.

"이 글자가 '부양미'입니다."

"...부, 양, 미."

"이 두 글자가 붙어 있으면 쌀 얘기입니다. 이게 보이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다음은."

"그다음은 이겁니다. '제사조'. 이걸 일하면 쌀이 준다는 뜻입니다."

한 달 사이에 사람들은 두 낱말을 알게 되었다. 두 달 사이에 열 낱말을 알게 되었다.

도현은 그것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무공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밤마다 단전이 조금씩 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그 차오름의 곁이 예전과 달랐다.

예전 내공은 그가 밀어 넣은 것이었다.

이번 것은 저잣거리에서 흘러들어 왔다.

석 달째 되던 날, 일이 벌어졌다.

명석 앞에서 규정집을 넘기던 늙은 사내가 손을 들었다. 눈이 어두워 얼굴을 종이에 바짝 붙이고 있었다.

"소협."

"예."

"여기 이거."

사내가 짚은 곳은 제칠권(第七卷)이었다. 도현이 삼 년 전에 읽었고, 별것 없다고 넘긴 대목이었다.

"'생계를 함께 하는 자'라고 되어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나는 아들놈이랑 호적은 같은데 십오 년을 안 봤어. 생계를 같이 안 하지. 근데 관에서는 아들이 있다고 쌀을 안 주네."

도현이 규정집을 당겨 보았다.

부양의무자가 생계를 함께 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도현의 손이 멈췄다.

그는 이 문장을 읽은 적이 있었다. 삼 년 전에. 그리고 넘겼다. 그때 그가 찾던 것은 일하면서 쌀을 받는 길이었고, 이 문장은 거기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어르신."

"응."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늙은 사내가 눈을 깜빡였다.

"내 일이잖나."

도현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내 일이니까 이 대목에서 걸리지. 소협은 안 걸렸을 거야. 소협은 아들이 없으니까."

그날 저녁, 도현은 명석을 걷지 못하고 오래 앉아 있었다.

삼 년 동안 그는 스물두 권을 읽었다. 두 번 읽은 권도 있었다. 그런데 제철권의 그 한 줄은 그의 눈에 걸리지 않았다. 그는 그 조항이 아플 자리를 몸에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사백열둘이 각자 아픈 자리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스물두 권을 읽을 때 걸리는 곳은 사백열두 군데다.

도현이 혼자 읽어서는 평생 못 볼 자리들이었다.

그렇게 두 해가 갔다.

멍석은 여름에도 펴고 겨울에도 폈다. 비가 오면 처마 밑으로 옮겼고, 눈이 오면 순덕의 방으로 들었다. 오는 사람이 늘었다 줄었다 했고, 글자를 아홉 자쯤 알고는 발길을 끊는 이가 있었으며, 그 아홉 자로 자기 종이를 읽어낸 이도 있었다.

도현은 그동안 저잣거리를 떠나지 않았다.

두 해째 가을, 강철이 왔다.

굽은 오른손을 소매에 넣고, 다리를 절며, 강변에서 여드레를 걸어 왔다고 했다. 저잣거리 어귀에서 도현을 보고는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다.

"...형님."

"살아 있었군."

강철이 멍석 쪽을 턱으로 가리켰다. 사람들이 규정집을 돌려 보고 있었다. 누가 읽고 누가 듣고,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서로 알려주는 중이었다.

"저건 뭐가."

"글을 읽습니다."

"자네가?"

"이제는 저들이 읽습니다."

강철이 오래 그 광경을 보았다. 그러다 짧게 말했다.

"나루는 잘렸네."

도현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고쳐."

도현이 눈을 들었다.

"죄송하다는 건 자네가 잘못했던 말이잖아." 강철이 웃었다. "나 두 해 반을 아침에 나갔어. 그건 자네가 준 거야. 잘못된 걸로 만들지 말게."

도현의 눈이 뜨거워졌다.

"근데 자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네."

강철이 소매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다.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했다. 도현이 삼 년 전에 손수 베껴 돌린 열두 장짜리 문서였다.

"강변 사람들이 이걸 돌려 읽었어."

"...읽으셨습니까. 글을."

"못 읽지. 그래서 아는 놈 하나 데려다 앉혀놓고 스무 번을 읽혔네." 강철이 종이를 펼쳤다. 여백에 뽕뽕한 글씨가 빼곡했다. "듣다 보니까 이상한 데가 나오더라고. 여기, 여기, 여기."

도현이 여백의 글씨를 들여다보았다.

문장이 아니었다. 낱말과 표시뿐이었다. 그러나 짙은 자리마다 도현이 못 본 곳이였다.

"이건 눈 어두운 사람은 못 하는 거고. 이건 애 있는 집은 안 되고. 이건 셋방 사는 사람은 걸리고." 강철이 굵은 손으로 종이를 짚어 내려갔다. "자네 문서는 나 같은 놈한테는 맞는데, 강변에 나 같은 놈이 몇이나 되나. 사백열둘이 다 다르지."

"..."

"그래서 우리가 고쳤네. 마흔한 가지로."

도현의 손이 떨렸다.

"...마흔한 가지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강철이 종이를 도현에게 내밀었다. "자네가 삼 년 걸려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가 여덟 달 만에 마흔을 만들었어. 우리는 겪은 놈들이니까."

도현이 종이를 받았다.

받는 순간, 단전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크게 움직였다.

그날 밤 도현은 등불 아래서 종이를 찢다.

강철이 가져온 마흔한 가지와, 저잣거리에서 늙은 사내가 짚은 제철권과, 순덕이 녀 달을 품고 있던 통지문을 나란히 놓았다.

그리고 붓을 들었다.

나는 삼 년 동안 좁은 길을 하나 찾았다. 그 길을 널리 알렸고, 그래서 그 길이 막혔다.

나는 그것을 내 죄로 여겼다. 오늘 그것이 틀렸음을 알았다.

길이 막힌 것은 사백 명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사백 명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막히지 않았을 것이고, 막히지 않은 길은 백 년을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백 년 동안 좁은 채로.

관은 시월에 그 길을 막으면서 처음으로 규정 제사조를 손댔다. 삼십 년 만이다. 목 노사께서 삼십 년 동안 한 글자도 안 바뀌었다 하셨다. 오늘 나는 그 조항이 처음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나쁜 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움직였다.

움직이는 것은 벨 수 있다.

붓이 멈췄다.

도현은 오래 그 마지막 줄을 보았다. 그러다 다시 썼다.

나는 삼 갑자가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반쯤 탄 단전으로는 평생 못 채운다.

그런데 오늘 강철 형님이 마흔한 가지를 가져왔고, 저잣거리에서는 서른이 제칠권을 읽고 있다.

노사께서는 삼 갑자가 한 사람의 내공이라 하지 않으셨다.

나는 그것을 삼십 년 동안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서 그리 알았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새벽에 순덕이 문을 열었다.

"안 잤나."

"예."

"갈 데가 생겼구먼."

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순덕은 도현의 짐을 이미 꾸려놓고 있었다. 등짐 하나. 안에 옷 두 벌과, 불에 그슬린 기록과, 강철의 새끼줄과, 이제 마흔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어르신."

"가야지."

"어르신은요."

순덕이 웃었다.

"나는 여기서 나물 팔지. 그리고 저 사람들 글 읽는 거 옆에서 듣고."
순덕이 저잣거리 쪽을 보았다. "나도 이제 낱말 열둘은 아네. 부양미, 제사조, 생계, 명백..."

도현이 짐을 졌다.

"어르신."

"응."

"제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여쭙면, 어르신은 곤란하시다 하셨습니다."

"그랬지."

"그러면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도현이 순덕을 보았다. "제가 다시 오면, 그때 무엇을 같이 할까요."

순덕이 잠시 도현을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도현이 묻기 전에 대답했다.

"글을 배우려네."

"...예?"

"나 여든이야.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내 종이는 내가 읽고 죽고 싶어."
순덕이 광주리를 집어 들었다. "그러니까 살아 돌아와."

도현이 깊이 예를 갖추었다.

산문까지는 스무 날 길이였다.

도현이 저잣거리를 떠나고 반년(半年) 뒤, 강호에 소문이 하나 돌았다.

어느 고을 저잣거리에서 사람들이 관의 규정집을 읽는다는 이야기였다. 글을 모르는 자들이 서로 글자를 짚어 가르치고, 관아에 몰려가 조항을 짚어 따진다고 했다.

무림맹에서는 그것을 무공이라 부르지 않았다. 무공에는 초식이 있고 사부(師父)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는 둘 다 없었으므로.

다만 실적교에서는 그것을 무공으로 보았다.

그해 겨울, 수치존자(數値尊者)가 처음으로 종합문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 제 6 장 끝 *

제 4 부 실적교(實績敎)

제 7 장

붉은 옷

산문은 그대로였으나 마당이 넓어 보였다.

사람이 줄었기 때문이었다. 도현이 떠날 때 종합문에는 스물아홉이 있었다. 셋 해 만에 돌아와 보니 열넷이었다.

마당을 쓸던 어린 문도가 그를 보고 멈춰 섰다. 낯선 얼굴이었다. 도현이 떠난 뒤에 든 아이인 듯했다.

"뉘십니까."

"...서도현이라 합니다."

아이의 손에서 빗자루가 떨어졌다.

목 노사는 서고에 있었다.

결재판은 그대로였다. 서류가 세 뼘 높이로 쌓여 있는 것도 그대로였다. 다만 그것을 든 손목이 떨리고 있었다.

도현이 문지방에서 절을 올렸다.

"돌아왔습니다."

노사가 고개를 들었다. 삼 년 사이에 머리가 온통 섰고, 눈이 흐려졌으며, 목덜미의 살이 빠져 옷깃이 헐렁했다.

"...살았구나."

"예."

"단전을 보자."

도현이 다가가 앉았다. 노사가 등에 손을 얹었다. 한참을 짚었다.
그러다 손을 떼고, 이상하다는 얼굴로 도현을 보았다.

"찾구나."

"...예."

"주화입마를 겪은 자가 삼 년에 이만큼 찬 예는 못 봤다." 노사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런데 이건."

"예."

"이건 네 것이 아니야."

도현이 고개를 숙였다.

"빌린 것입니다."

"누구한테."

"저잣거리 사람들한테서요. 그리고 강철 형님과, 마순덕 어르신께."

노사가 오래 도현을 보았다.

"빌린 내공은 언젠가 돌려줘야 한다."

"압니다."

"어떻게 돌려줄 테냐."

"모르겠습니다." 도현이 솔직히 답했다. "다만 안 돌려주면 이것도 타
버릴 것 같습니다."

노사가 처음으로 웃었다. 이가 두 개 빠져 있었다.

문파의 사정은 짐작보다 나빴다.

군자금의 반으로 줄었으므로 열넷이 스물아홉의 몫을 해야 했다.

그런데 어사가 보는 것은 수효였다. 만난 사람의 수, 만난 횟수.

도현은 이레 동안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셋째 날, 어린 문도 하나가 강변에서 돌아왔다.

"몇 집이나 들렀느냐." 장로가 물었다.

"열한 집입니다."

"오늘은 잘했다."

도현이 그 아이를 따로 불렀다.

"열한 집을 하루에 도십니까."

"예."

"한 집에 얼마나 계십니까."

아이가 눈을 피했다.

"...문 앞에서 안부만 여쭙습니다. 계시냐고, 별일 없으시냐고. 그럼 한 집에 반 각이 안 걸립니다."

"..."

"소협." 아이가 목소리를 낮췄다. "안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그날 다섯 집밖에 못 돕니다. 그러면 달에 백을 못 채웁니다."

도현은 그 아이를 나무라지 못했다.

그 아이는 도현이 삼 년 전에 하던 짓을, 더 정직하게 하고 있을 뿐이었다.

밤에 도현이 노사에게 물었다.

"노사님. 저건 아시지 않습니까."

"안다."

"막지 않으십니까."

노사가 결재판을 내려놓았다.

"막으면 수효가 준다. 수효가 줄면 다음 삼년지험에서 서른 문파 중 꼴찌다. 꼴찌면 군자금이 또 반이 되고, 그러면 열넷이 일곱이 돼."

"..."

"일곱이 되면 강변에 아무도 못 간다." 노사가 도현을 보았다. "저 아이가 문 앞에서 반 각 서 있는 것과, 아무도 안 가는 것 중에 무엇이 나으냐."

도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게 저쪽의 힘이다." 노사가 말했다. "저쪽은 우리에게 나쁜 짓을 시키지 않아.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중에 고르게 만들 뿐이지."

연화가 온 것은 열흘 뒤였다.

산문 앞에 가마가 섰다. 수행이 넷이었고, 문서 궤짝이 둘이었다. 가마에서 내린 여자는 붉은 옷을 입고 있었다. 소매 끝에 붉은 인장 문양이 은실로 수놓여 있었다.

도현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그를 보았다.

연화도 도현을 보았다.

둘 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살았구나."

"응."

"어디 있었어."

"저잣거리."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수행들에게 손짓해 물렸다.

서고에서 마주 앉았다.

"소문 들어어." 연화가 먼저 말했다. "글 가르치는 거."

"응."

"좋더라. 진짜로."

"..."

"근데 도현아." 연화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몇 명이야?"

도현이 눈을 들었다.

"저잣거리, 몇 명이 글을 읽게 됐어?"

도현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모르겠어."

"모른다고?"

"세지 않았어."

연화가 잠시 도현을 보았다. 화를 내지 않았다. 비웃지도 않았다. 다만 지친 얼굴이었다.

"그럼 나는 그걸 어디에 적니?"

"..."

"내가 지금 지표를 만드는 자리에 있어. 관이 문파를 볼 때 뭘 볼지 정하는 자리야." 연화가 말했다. "나는 네가 한 걸 지표에 넣고 싶어. 진짜로 넣고 싶어. 그런데 넣으려면 칸이 있어야 하고, 칸에는 숫자가 들어가야 해. '많습니다'는 못 써."

도현이 주먹을 쥐었다.

"연화야. 셀 수 없는 게 있어."

"알아."

"안다고?"

"나도 삼 년 전에 너랑 같은 마당에 서 있었어." 연화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셀 수 없는 건 어찌냐고 물은 게 나야. 장로님이 대답 못 하셨잖아. 기억 안 나?"

"..."

"그래서 내가 저쪽으로 간 거야. 대답을 만들려고."

"도현아. 네가 산을 내려간 그 봄에 어사가 왔어."

연화가 찻잔을 밀어 놓았다.

"우리 스물여덟 위였어. 서른 문파 중에. 군자금이 반이 됐고, 열하나가 산을 내려갔지. 나는 그 열하나를 산문 앞까지 배웅했어. 열한 번."

도현의 손이 떨렸다.

"그중에 셋은 갈 데가 없었어. 문파 밖에서 뭘 할 줄 아는 게 없는 애들이었거든. 하나는 그해 겨울에 굶었다고 들었어. 확인은 못 했고."

"연화야—"

"너는 그때 어디 있었니."

방 안이 조용했다.

"미안. 이건 치사한 말이야." 연화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알면서도 삼 년 동안 하고 싶었어. 이제 했으니까 됐어."

"..."

"나는 안 미워해, 도현아. 너는 탔고, 탄 사람은 쉬어야 해. 그건 옳아." 연화가 말했다. "근데 남은 사람도 있잖아. 남은 사람은 그동안 뭘 했겠니. 나는 샘을 했어. 우리가 셀 줄 모르면 셀 줄 아는 놈들이 우리 대신 세거든. 그놈들은 우리 일을 몰라. 그러면 엉뚱한 걸 세."

연화가 꺾꽂에서 문서를 꺼냈다. 표가 있었다. 삼 년 전 도현이 보았던 것과 비슷했으나, 칸이 늘어 있었다.

"이거 봐. 이 칸, 내가 넣었어."

도현이 들여다보았다.

재방문 간격 — 같은 이를 두 번 만나기까지 걸린 날수.

"이게 뭐야."

"문 앞에서 반 각 서 있는 걸 막는 칸이야." 연화가 말했다. "많이 만나게 아니라 다시 만난 걸 세는 거지. 그러면 하루 열한 집이 유리하지 않게 돼. 이 칸 하나 넣는 데 두 해 걸렸어."

도현이 그 칸을 오래 보았다.

"...연화야."

"응."

"이거, 그 아이들 살리는 칸이네."

"응."

"고맙다."

연화가 고개를 저었다.

"고맙다고 하지 마. 나는 저쪽에서 그 칸 하나 넣는 대신에 다른 칸 열둘을 통과시켰어." 연화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열둘 중에 몇은 나빠. 나쁜 줄 알면서 통과시켰어. 하나 얻으려고."

도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붉은 옷이야." 연화가 소매를 내려다보았다. "이거 입으면 저쪽 회의에 들어갈 수 있거든. 안 입으면 문 밖에서 기다려야 해. 나는 문 밖에서 이 년을 기다려 봤어."

밤이 깊도록 둘은 앉아 있었다.

"도현아. 하나만 물을게."

"응."

"너는 셀 수 없는 걸 지키자는 거지."

"응."

"그럼 셀 수 없는 걸 어떻게 지켜?"

도현이 답하지 못했다.

"관에 가서 지켜달라고 해? 관은 장부로 움직여. 장부에 없는 건 관한테는 없는 거야. 그건 저쪽 교리가 아니라 그냥 관이 굴러가는 방식이야." 연화가 말했다. "실적교가 무서운 게 뭔지 아니? 저쪽이 틀렸으면 진작 무너졌어. 저쪽은 안 틀렸어. 절반은 맞아."

"...어느 절반이."

"셀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절반."

연화가 일어섰다.

"틀린 절반은, 셀 수 없으면 없다고 하는 거고."

문 앞에서 연화가 돌아보았다.

"도현아. 나는 네가 저쪽을 이겼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연화가 말했다. "근데 네가 지금처럼 '세지 않았어'라고 하면 못 이겨. 그건 이기는 게 아니라 안 싸우는 거야."

연화가 떠난 뒤, 도현은 서고에 홀로 앉았다.

붓을 들었다.

연화가 붉은 옷을 입었다. 나는 그를 배신자라 부르려 했으나, 오늘 그가 두 해 걸려 만든 칸 하나를 보았다.

그 칸은 어린 문도가 문 앞에서 반 각 서 있지 않아도 되게 만든다. 나는 삼 년 동안 그런 것을 하나도 만들지 못했다.

붓이 멈췄다. 도현은 다음 줄을 오래 못 썼다.

연화가 물었다. 저잣거리에서 몇이 글을 읽게 되었느냐고.

나는 세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것을 자랑처럼 말했다.

그러나 순덕 어르신은 낱말 열둘을 아신다고 하셨다. 어르신은 세고 계셨다. 세고 계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헤아려 내게 말씀하셨다.

세는 것이 병이 아니었다. 세기만 하는 것이 병이었다.

나는 병을 앓고 나서, 세는 것 자체를 버렸다. 그것은 낫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넘어진 것이다.

도현이 붓을 놓았다.

문 앞에 목 노사가 서 있었다.

"들었다."

"...예."

"연화가 옳으냐."

"절반은 옳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도현이 잠시 생각했다.

"세는 법을 저쪽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도현이 천천히 말했다.

"연화는 칸을 하나 넣기 위해 두 해를 기다렸습니다. 칸을 정하는 자리는 저쪽에 있으니깐요. 연화는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붉은 옷을 입었고, 들어가서도 열둘을 내주고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저쪽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사가 서고 안으로 들어왔다. 꺾꽂이 앞에 앉았다. 자물쇠는 여섯 해째 그대로였다.

"도현아."

"예."

"옹호검법이 왜 관을 향해서만 뽑는 검인지 아느냐."

"...모릅니다."

"관은 사람을 안 죽인다. 관은 칸을 만들 뿐이야." 노사가 자물쇠를 만졌다. "그런데 칸이 사람을 죽여. 그러니 벨 것은 사람이 아니라 칸이지."

도현의 등에 소름이 돋았다.

"연화는 칸 안에서 칸 하나를 고쳤다. 그건 대단한 일이야. 나는 삼십 년 동안 못 했어." 노사가 말했다. "그런데 칸을 누가 만드느냐는, 칸 안에서는 못 고친다."

"...그러면 밖에서 고칩니까."

"밖에서는 안 들려."

"그러면요."

노사가 도현을 보았다.

"그러니까 검이 필요한 거다."

이레 뒤, 무림맹에서 파발이 왔다.

두 가지 소식이었다.

하나는 다음 삼년지험의 날짜였다. 이듬해 봄. 이번에는 어사가 문파를 돌지 않고, 문파가 무림맹으로 올라와 대전(大典)에서

겨룬다고 했다. 서른 문파가 한자리에서 수효를 겨루고, 순위를 매기고, 군자금을 나눈다.

다른 하나는 어사의 이름이었다.

두루마리를 읽던 장로가 멈칫했다.

"...이 이름."

도현이 다가가 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굳었다.

그가 아는 이름이었다. 여섯 해 전, 강변 판잣집의 규정 제사조를 짚으며 악의 없이 "그렇게 됩니다"라고 말하던 젊은 사내. 예를 갖추어 인사하고, 마당을 나서다 돌아보며 이렇게 말한 자.

저도 처음에는 그걸 물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사가 되어 있었다.

두루마리 끝에는 그가 부임 후 처음으로 손댄 규정이 적혀 있었다.

제십사권 주석 — 삭제.

도현의 손에서 두루마리가 흔들렸다.

— 제 7 장 끝

제 8 장

열아홉

어사의 이름은 윤경(尹敬)이었다.

대전을 앞두고 서른 문파를 도는 순시(巡視) 길에, 그는 종합문에 사흘을 머물렀다. 수행을 셋만 데리고 왔고, 상석을 사양했고, 문도들이 내온 밥상에서 반찬 두 가지를 물렸다. 과하다는 이유였다.

문파 사람들은 그를 어려워했다. 나무라는 법이 없는데도 그랬다.

사흘째 저녁, 윤경이 도현을 불렀다.

"오래되었습니다."

윤경이 먼저 예를 갖추었다. 여섯 해 전보다 머리가 섰으나 옷은 그때처럼 정갈했다.

"...기억하십니까."

"제십사권 주석을 물으신 분을 잊겠습니까." 윤경이 앉기를 권했다.

"규정집 스물두 권을 다 읽었다 하신 분은, 제가 십오 년 관에 있으면서 소협 한 분뿐이었습니다."

도현이 자리에 앉았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사께서 지우셨다 들었습니다."

"예."

"어째서입니까."

윤경이 찻잔을 들었다가 도로 놓았다.

"먼저 셈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윤경이 말했다. "소협의 문서로 빠져나간 수효가 사백입니다. 부양미를 받는 자는 이 나라에 몇이나 될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삼만 팔천입니다."

도현이 눈을 들었다.

"작년 시월, 사백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자 상부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규정에 구멍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

"구멍 하나를 막자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다시 짜자는 말이 나옵니다."

윤경이 손가락으로 탁자를 짚었다.

"부양미는 재원(財源)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짜는 자리에는 재원을 줄이자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열 번쯤 앉아 봤습니다. 열 번 중 여덟 번은 줄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먼저 주석을 지웠습니다."

윤경이 도현을 보았다.

"구멍이 막혔으니 다시 짤 이유가 없어졌지요. 논의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도현의 입이 말랐다.

"저는 사백을 잃고 삼만 팔천을 지켰습니다."

도현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어사."

"예."

"그 사백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압니다."

"강철이라는 이가 있습니다. 마흔여섯이고 오른손이 굵었습니다. 열여덟 해를 받기만 하다가 두 해 반 동안 아침에 나갔습니다. 어사께서 지우신 날부터 그이는 다시 아침에 갈 데가 없습니다."

윤경이 눈을 감았다. 오래 감고 있었다.

"삼만 팔천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

"다만 제 장부에는 숫자로 있습니다. 소협이 사백도 제 장부에는 숫자입니다. 차이는 소협께서 그 사백의 얼굴을 보셨다는 것뿐이고—"
"윤경이 눈을 떴다. "그것은 소협의 사정이지만, 제도의 사정이 아닙니다."

도현의 손이 떨렸다.

"...그러면 얼굴을 본 자는 아무 말도 못 하니까."

"아니요. 말씀하셔야지요. 그게 소협이 일입니다." 윤경이 말했다.
"다만 그 말이 제 장부를 못 이깁니다. 소협은 얼굴 사백을 아시고
저는 숫자 삼만 팔천을 압니다. 사백이 삼만 팔천을 못 이깁니다.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

"저는 소협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저는 소협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소협을 막습니다." 윤경이
말했다. "옳은 것을 막는 일이 십오 년째입니다."

밤이 깊었다.

윤경이 술을 청했다. 문도가 내온 것은 문파에 하나 남은 탁주였다.

"소협."

"예."

"제가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합니다."

윤경이 잔을 비웠다.

"저도 처음에는 물었습니다. 규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소협께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기억합니다."

"스물여덟에 상소(上疏)를 올렸습니다."

윤경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부양미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좁다고 썼습니다. 문서로 백이십 장이었습니다. 겨울에 세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고, 그 세 사람 이야기를 첫 장에 썼습니다. 이름과 나이와 사는 곳까지요."

도현의 등이 서늘해졌다.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었습니까."

"예. 이듬해 삼월(三月)에요. 요건이 넓어졌고, 새로 만 이천이 부양미를 받게 되었습니다." 윤경이 잔을 채웠다. "저는 그해 봄에 처음으로 관에 든 것을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경이 잔을 들었다가 마시지 않고 내려놓았다.

"재원은 안 늘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받는 자가 만 이천 늘었는데 공간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 일인당 몫이 줄었지요. 한 사람에 한 달 여섯 되씩 줄었습니다. 여섯 되가 별것 아닌 것 같지요."

"..."

"그해 겨울에 열아홉이 죽었습니다."

도현의 숨이 멎었다.

"굶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여섯 되로 죽지는 않아요. 다만 그 여섯 되가 없어서 약을 못 산 노인이 있었고, 땀감을 줄인 집이 있었고, 아이 둘 있는 집에서 어미가 먹기를 줄였습니다. 겨울이 길었고요." 윤경이

말했다. "관에서 그것을 세어 봤습니다. 제가 썼습니다. 열아홉이었습니다."

윤경이 도현을 보았다.

"그 열아홉은 원래 받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넓히지 않았으면 안 죽었을 사람들이고요."

"...어사."

"만 이천이 새로 받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윤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사실이지요. 소협이 문파에서는 그런 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도현이 얼굴을 감쌌다.

"저는 그 거울에 이름 열아홉을 외웠습니다. 지금도 씁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규정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윤경이 잔을 비웠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저는 게을러서 안 고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고쳐 봤습니다."

도현은 그날 밤 서고에 앉아 붓을 들지 못했다.

여섯 해 동안 그는 관을 미워하는 법을 배워 왔다. 규정 제사조를 미워했고, 그것을 집행하는 자들을 미워했고, 미워하는 만큼 검을 그리워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마주 앉은 자는, 검을 뽑아 본 자였다.

뽑아서 열아홉을 죽인 자였다.

도현은 처음으로 꺾꽂이 속의 검이 무서워졌다.

나는 오늘 어사 윤경을 만났다.

*그는 스물여덟에 검을 뽑았고, 그 검이 뒤로 돌아 열아홉을 베었다.
그 뒤로 십오 년 동안 검을 만지지 않는다.*

*목 노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공이 모자란 자가 옹호검법을 뽑으면
검이 뒤로 돈다고. 나는 그것을 겁주려는 말인 줄 알았다.*

윤경은 겁이 많은 자가 아니다. 그는 겪은 자다.

나는 무엇을 근거로 뽑겠다 하는가.

이튿날 새벽, 윤경이 떠나기 전에 도현이 산문까지 배웅했다.

가마에 오르기 전, 윤경이 돌아섰다.

"소협."

"예."

"내년 봄 대전에 나오십니까."

"...나갑니다."

"저를 겨누실 테지요."

도현이 대답하지 못했다.

윤경이 웃었다. 여섯 해 전 마당에서 짓던 그 웃음이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탁이라 해도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를 설득하지 마십시오."

도현이 눈을 들었다.

"소협께서 대전에서 좋은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아마 설득될 겁니다. 저는 여전히 설득이 잘 되는 사람이라서요." 윤경이 말했다. "그리고 설득되면 저는 또 규정을 고칠 겁니다. 그러면 또 열아홉이 죽습니다. 이번에는 몇일지 모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지 마십시오."

윤경이 잠시 말을 골랐다.

"제가 몰랐던 것을 보여주십시오."

도현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저는 스물여덟에 백이십 장을 썼습니다. 그 안에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셋을 만나 보고 만 이천을 헤아렸습니다. 그것이 제 잘못입니다." 윤경이 말했다. "셋을 알고 만 이천을 정한 것이지요. 여섯 되가 없어지면 누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물어볼 생각도 못 했고요."

"..."

"제가 그때 그것을 알았으면 상소를 다르게 썼을 겁니다. 재원을 같이 늘리자고 썼겠지요. 그러면 통과가 안 됐을 수도 있고, 됐을 수도 있고요." 윤경이 가마에 손을 얹었다. "다만 열아홉은 안 죽었을 겁니다."

가마가 움직였다.

열 걸음쯤 가다 윤경이 발을 세웠다.

"소협. 저는 지금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제 장부에는 칸이 스물셋뿐입니다. 삼만 팔천의 삶에 칸이 스물셋일 리가 없지요."

"..."

"저는 그 나머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윤경이 떠난 뒤, 도현은 산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서고로 뛰었다.

붓을 들었을 때 손이 떨렸다. 여섯 해 전, 제십사권 주석을 찾아낸 새벽에 떨던 것과 같은 떨림이었다.

어사는 셋을 알고 만 이천을 정했다. 그것이 그의 잘못이라 했다.

나는 아흔셋을 통과시키고 그 얼굴을 셋만 기억했다. 그것이 내 병이었다.

우리는 같은 잘못을 했다. 다만 그는 위에서 했고 나는 아래에서 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겪은 자에게 묻지 않았다.

붓이 빨라졌다.

저잣거리에서 늙은 사내가 제칠권을 짚었다. 나는 스물두 권을 두 번 읽고도 그 줄을 못 보았다. 나에게 아들이 없기 때문이다.

강칠 형님이 마흔한 가지를 가져왔다. 나는 삼 년에 하나를 만들었고, 겪은 자들은 여덟 달에 마흔을 만들었다.

어사의 장부에는 칸이 스물셋이다. 그는 나머지를 알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는 그 사람들이 아니므로.

나도 아니다.

그러면 누가 아는가.

도현이 붓을 놓았다.

답은 이미 여섯 해 전 강변 판잣집에서 나와 있었다. 그가 삼 년을 태우고 삼 년을 떠돌고서야 알아들었을 뿐이었다.

무엇이 필요하냐고 묻지 마라. 같이 살아라. 살다 보면 나온다.

도현이 일어섰다.

내년 봄 대전에 가져갈 것은 문서가 아니었다.

목 노사는 마당에 나와 있었다.

밤바람이 왔다. 노사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산문 쪽을 보고 있었다. 도현이 다가가자 돌아보았다.

"뛰는 소리가 나더구나."

"노사님."

"말해라."

"대전에 사람을 데려가겠습니다."

노사의 지팡이가 멎었다.

"...사람이라니."

"강철 형님과, 순덕 어르신과, 저잣거리에서 제칠권을 짚은 어르신과. 그리고 강변에서 마흔한 가지를 만든 이들 전부입니다." 도현이 말했다. "그이들이 아는 것은 제가 못 압니다. 어사도 못 압니다. 관의 장부에는 칸이 스물셋뿐이고, 나머지는 그이들 몸에만 있습니다."

노사가 한참을 말이 없었다.

"도현아."

"예."

"대전에는 문파만 든다."

도현이 멈칫했다.

"서른 문파의 문도만 대전 마당을 밟는다. 백 년 규례(規例)야." 노사가 말했다. "부양미를 받는 자는 대전에 못 들어간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

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갔다.

도현은 오래 서 있었다. 그러다 낮게 말했다.

"...그것도 칸입니까."

노사가 도현을 보았다.

"그렇지."

"그러면 그것부터 베어야겠습니다."

노사의 눈이 조금 커졌다.

그리고 오랜만에, 여섯 해 만에, 노사가 소리 내어 웃었다. 웃다가 기침을 했다. 기침이 길었다. 도현이 등을 짚으려 하자 손을 저었다.

기침이 멎었을 때, 노사가 손을 폈다.

손바닥에 피가 묻어 있었다.

"...노사님."

"별것 아니다."

"노사님."

"도현아." 노사가 손을 소매에 감췄다. "봄까지는 산다."

*— 제 8 장 끝 *

제 9 장

문턱

청원(請願)은 동짓달에 올랐다.

대전 참례(參禮) 규례 개정의 건 — 종합문 서도현.

내용은 한 줄이었다. 부양미를 받는 자도 대전 마당을 밟게 해 달라는 것.

무림맹 서기가 청원을 받아 들고 잠시 도현을 보았다.

"...이건 백 년 규례입니다."

"압니다."

"고치려면 서른 문파 중 열여섯이 찬성해야 합니다."

"압니다."

서기가 붓을 들었다가 놓았다.

"소협. 지난 백 년 동안 이 규례에 청원이 몇 번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연화가 찾아온 것은 이레 뒤였다.

이번에는 가마도 수행도 없이 혼자 왔다. 붉은 옷 위에 낡은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미쳤어?"

"..."

"도현아. 네가 뭘 하려는지는 알겠어. 근데 저쪽이 뭘 할지는 생각해 봤니?"

"말해 봐."

연화가 앉지도 않고 말했다.

"저쪽은 감동을 셀 줄 알아."

도현이 눈을 들었다.

"내가 그 회의에 이 년 들어갔어. 저쪽에서 뭘 하는지 알아? 사연을 모아. 진짜 딱한 이야기, 눈물 나는 이야기. 그걸 대전 마당에서 읽어. 그러면 좌중이 숙연해지고 군자금이 나와."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나쁘냐고? 안 나빠. 그 돈으로 사람이 살아. 근데 그 이야기의 주인은 무대에 안 서. 이름만 빌려주지."

"..."

"네가 강철 어른을 대전에 데려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도현이 대답하지 못했다.

"저쪽이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어른을 앞에 세우는 거야. 굵은 손 들어 보이라고 하겠지. 열여덟 해 이야기 해 보시라고 하겠지. 좌중이 울 거야. 박수도 칠 거야." 연화가 말했다. "그리고 그 어른은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뭐가 된 건지 알게 돼."

방 안이 조용했다.

"나는 그걸 이 년 동안 봤어. 그래서 붉은 옷 입고도 그건 못 하겠더라." 연화가 눈을 문질렀다. "도현아. 문 여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야. 준비 안 된 문은 사람을 구경거리로 만들어."

도현이 오래 침묵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연화야. 그이들은 사연을 말하러 가는 게 아니야."

"...그럼 뭘 하러 가?"

도현이 꺾꽂이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다.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한, 여백에 뽕뽕한 글씨가 빼곡한 열두 장짜리 문서.

"읽으러 가."

연화가 종이를 받아 들었다.

"강칠 형님이 여덟 달 동안 만드신 거야. 마흔한 가지. 규정이 어디서 걸리는지, 사람마다 어떻게 다른지." 도현이 말했다. "이건 사연이 아니야. 이건 분석이야. 나도 못 한 분석이고, 어사도 못 한 분석이야."

"..."

"저쪽이 강칠 형님한테 손 들어 보이라고 하면, 형님은 이걸 펼칠 거야."

연화가 종이를 넘겼다. 한 장, 두 장. 여백의 글씨를 손끝으로 짚어 내려갔다.

손이 멈췄다.

"...도현아. 이 열아홉 번째."

"응."

"이거 우리 지표에 없는 칸이야."

"알아."

연화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이거 내가 이 년 동안 못 찾은 칸이야."

동짓달부터 정월까지, 도현은 서른 문파를 돌았다.

여섯 해 전 그가 자원연계권이라 배운 무공이 있었다. 남의 힘을 빌려 치는 권법. 그때 도현은 그것을 상단(商團)에서 연탄을 얻는 기술로 알았다.

이제야 그 권법의 뜻을 알았다.

남의 힘을 빌리려면 남이 왜 나서야 하는지를 그 사람 자리에서 말해야 한다.

노인문(老人門)에서는 사흘을 문 앞에 서 있었다. 나흘째 장로가 나왔다.

"우리가 왜 찬성해야 하나."

"노인문은 서른 문파 중 셋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쉬울 게 없지."

"예. 그래서 여쭙습니다." 도현이 말했다. "노인문 문도들은 하루에 몇 집을 돕니까."

장로의 얼굴이 굳었다.

"...왜 묻나."

"저희는 열한 집입니다. 문 앞에서 반 각씩 서 있습니다."

"..."

"노인문은 몇 집입니까."

장로가 오래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낮게 말했다.

"열넷이네."

"장로님."

"..."

"셋째 하시면서 열넷이면, 첫째는 몇이겠습니까."

노인문은 이레 뒤에 찬성 서찰을 보냈다.

정월 보름까지 모인 것은 열둘이었다.

거절한 문파들의 이유는 저마다 달랐으나 뿌리는 하나였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보인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 다만 어떤 장로는 "질서가 흐트러진다" 했고, 어떤 장로는 "그이들이 알아들겠느냐" 했으며, 어떤 장로는 도현을 문 안에 들이지도 않았다.

정월 스무날 밤, 도현이 서고에서 셈을 하고 있을 때 목 노사가 들어왔다.

지팡이를 짚었고 걸음이 느렸다. 앉는 데 한참이 걸렸다.

"몇이냐."

"열둘입니다."

"넋이 모자라는군."

"예."

노사가 기침을 했다. 짧게 끝났다. 소매를 감쌌다.

"내가 넋을 채우마."

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노사님. 몸이—"

"도현아." 노사가 말을 끊었다. "내가 삼십 년 동안 험로보로 뺀낸 사람이 몇인 줄 아느냐."

"...모릅니다."

"나도 모른다. 세지 않았으니까." 노사가 웃었다. "그런데 그중 절반은 우리 문파 사람이 아니었어."

도현이 눈을 깜빡였다.

"다른 문파에서 손을 못 쓸 때, 나한테 사람을 보냈다. 규정집을 나만큼 읽은 자가 강호에 없었으니까." 노사가 말했다. "그래서 그 문파들이 나한테 빛이 있다. 삼십 년치야."

"..."

"나는 그 빛을 한 번도 안 받았다. 받을 일이 없었으니까." 노사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이제 받으러 간다."

도현이 따라 일어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안 돼."

"노사님."

"이 빛은 내 것이다. 네가 가서 달라 하면 그냥 부탁이야. 내가 가야 빛이지." 노사가 문 앞에서 돌아보았다. "그리고 도현아."

"예."

"내가 삼십 년 동안 걸은 좁은 길이 헛것이 아니었다는 걸, 나도 한번은 보고 싶다."

목 노사는 열이레 만에 돌아왔다.

넋이 아니라 여섯을 채워 왔다. 돌아온 날 밤 노사는 사흘을 앓았다.

이월 초하루, 무림맹에서 표결이 열렸다.

찬성 열여덟, 반대 아홉, 기권 셋.

규례가 고쳐졌다.

그런데 표결 문서를 받아 든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찬성 열여덟 중에 실적교의 이름이 있었다.

"...연화야."

도현이 무림맹 뜰에서 연화를 붙들었다.

"왜 찬성했어?"

연화의 얼굴이 하얗다.

"나도 몰랐어. 회의에 안 불렀어."

"..."

"도현아." 연화가 낮게 말했다. "수치존자가 셈을 했을 거야. 저 양반은 이유 없이 표를 안 던져."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셈을 했지요."

돌아보니 붉은 옷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다. 키가 작고 등이 굽었으며 손에 주판을 들고 있었다. 얼굴이 온화했다.

도현은 그 순간 알았다. 마교(魔敎)의 교주가 무섭게 생겼으리라 여긴 것은 자기 착각이었다는 것을.

"서도현 소협이시군요. 뵈고 싶었습니다."

"..."

"규례 개정에 찬성한 것은 저입니다. 제가 나서지 않았으면 열여섯이 안 됐을 겁니다." 노인이 웃었다. "그러니 오늘 문이 열린 것은 제 덕이라 해도 되겠지요."

도현의 등이 서늘해졌다.

"어째서 찬성하셨습니까."

"소협께서 옳으시니까요."

"..."

"저는 옳은 것을 막지 않습니다. 그건 어사가 하는 일이고요." 노인이 주판을 한 번 튕겼다. "저는 옳은 것을 셉니다."

"...무슨 뜻입니까."

노인이 문서 한 장을 내밀었다.

대전 규례 부칙(附則) — 참례 범위를 넓히되, 대전의 승패는 예년대로 수효로 정한다.

도현이 그 문장을 세 번 읽었다.

"소협께서 사람을 몇이나 데려오시든 좋습니다. 백을 데려오셔도 좋고 천을 데려오셔도 좋습니다." 노인이 온화하게 말했다. "다만 순위는 수효로 매깁니다. 종합문은 지금 서른 문파 중 스물아홉째입니다."

"..."

"소협께서 겨울 내내 서른 문파를 도시는 동안, 종합문의 수효는 늘지 않았지요. 아니, 줄었습니다. 문도들이 소협을 도우러 다녔으니까요." 노인이 고개를 가웃했다. "제 셈으로는 이번 봄에 꼴찌이십니다."

도현의 손이 떨렸다.

"그러면 군자금이 또 반이 되고, 열넷이 일곱이 되겠지요. 그 일곱은 강변에 못 갑니다." 노인이 예를 갖추었다. "소협께서는 문을 여시고 문파를 잃으십니다. 그것이 제 셈입니다."

노인이 돌아섰다.

몇 걸음 가다 멈추고 덧붙였다.

"아, 그리고 소협."

"..."

"저는 소협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젊어서는 소협 같았습니다." 노인이 주판을 흔들었다. "다만 저는 셈을 배웠고 소협은 아직 안 배우셨을 뿐이지요. 봄에 뵈겠습니다."

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렸다.

도현은 열흘을 걸었다. 걸으면서 셈을 했다. 열두 번을 셈했고 열두 번 다 졌다.

수효로는 이길 방법이 없었다. 그것은 계산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산문에 닿았을 때, 마당에 문도들이 나와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어린 문도가 다가와 도현의 소매를 잡았다.

"소협."

"...노사님이."

"서고에 계십니다."

목 노사는 서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다.

궤짝 옆이었다.

"...왔구나."

"노사님."

"표결은."

"열여덟입니다."

노사가 웃었다. 웃는 데 힘이 들어 보였다.

"그것 봐라. 헛것이 아니었지."

"노사님. 부칙이 붙었습니다. 순위는 수효로—"

"안다. 파발이 먼저 왔어." 노사가 손을 저었다. "도현아."

"예."

"열쇠를 가져가라."

노사가 목에 걸고 있던 끈을 풀었다. 작은 쇠조각이 매달려 있었다.
여섯 해 동안 도현이 본 적 없는 것이었다.

도현이 받지 못하고 손을 떨었다.

"저는 삼 갑자가 안 됩니다."

"안 되지."

"그런데 어떻게—"

"도현아." 노사가 그의 손을 끌어다 열쇠를 쥐여주었다. 노사의 손이
얼음처럼 차다. "내가 여섯 해 전에 삼 갑자라고 했지."

"예."

"어디서 들은 말인지 아느냐."

"...모릅니다."

"나도 모른다."

도현이 눈을 들었다.

"내 사부가 나한테 그랬어. 삼 갑자가 되어야 뽑는다고. 나는 그 말을
믿고 삼십 년을 쌓았다. 못 채웠지." 노사의 목소리가 가늘어졌다.
"그러다 마흔쯤에 사부께 여쭙봤다. 삼 갑자가 대체 얼마냐고."

"...뭐라 하셨습니까."

"모른다 하시더라."

도현의 숨이 멎었다.

"당신 사부한테 들은 말이라고." 노사가 웃었다. "삼 대(三代)를 내려온 말인데, 아무도 그게 얼마나지 몰라. 아무도 재 본 적이 없어. 왜 그런지 아느냐."

"..."

"아무도 안 뽑아 봤으니까."

노사가 기침을 했다. 이번에는 길었다. 도현이 등을 받쳤다.

"내가 삼십 년을 쌓으면서 뭘 했는지 아느냐. 혼자 쌓았다." 노사가 말했다. "내 단전에만 쌓았어. 한 사람 단전에 삼 갑자가 들어가겠느냐. 안 들어가. 그러니 아무도 못 뽑지."

도현의 손에서 열쇠가 뜨거워졌다.

"그런데 네가 저잣거리에서 돌아왔을 때, 내가 네 등을 짚어 봤다."

"...예."

"네 것이 아니더라."

노사가 도현을 보았다. 흐린 눈이 잠시 맑아졌다.

"빌린 내공은 단전이 여럿이야. 여럿이면 삼 갑자가 들어간다."

"...노사님."

"내가 그걸 삼십 년 만에 알았다. 알고도 못 했어. 나는 빌릴 줄을 몰랐거든." 노사가 눈을 감았다. "삼십 년 동안 나는 주기만 했다. 너처럼."

"노사님."

"도현아."

"예."

"검은 네가 뽑는 게 아니야."

도현이 노사의 손을 잡았다.

"...그럼 누가 뽑습니까."

노사가 마지막으로 웃었다.

"뽑을 사람들을 네가 데려가는 거지."

목 노사는 그날 밤에 갔다.

이월 초닷새였다. 대전까지 예순 날이 남아 있었다.

도현은 노사의 결재판을 궤짝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가 세 뼘 높이로 쌓인 채였다. 삼십 년 동안 한 번도 손목이 떨리지 않았던 판이었다.

그리고 열쇠를 꽂았다.

여섯 해 만에 자물쇠가 돌아갔다.

궤짝 안에는 검이 없었다.

책이 한 권 있었다.

— 제 9 장 끝. 제 4 부 실적교 완

제 5 부 재패(制霸)

제 10 장

아흔 해

책에는 제목이 없었다.

표지는 검은 가죽이었고 모서리가 닳아 흰 실이 비어져 나와 있었다. 두께가 손가락 세 마디였다. 도현이 첫 장을 폈을 때, 종이가 부스러질 듯 얇았다.

첫 줄의 글씨는 목 노사의 것이 아니었다.

경자년(庚子年) 시월 초하루. 오늘 뽑지 못했다.

박씨 성을 가진 여인이 아이 둘과 함께 굶었다. 규정 제십일조(第十一條)에 걸렸다. 나는 조항을 옮겨 적고 관아에 세 번 갔으나 문 안에 들지 못했다. 내공이 모자란다.

도현이 장을 넘겼다.

경자년 시월 열셋새. 오늘도 뽑지 못했다.

신묘년(辛卯年) 삼월. 오늘 뽑지 못했다.

같은 글씨로 서른 해가 이어졌다.

그다음부터 글씨가 바뀌었다. 획이 굵고 성급한 글씨였다.

임인년(壬寅年) 사월(四月). 사부께서 가셨다. 이 책을 물려받았다. 첫 줄을 무어라 써야 할지 몰라 사흘을 두었다.

임인년 사월 초나흘. 오늘 뽑지 못했다.

그 글씨로 또 서른 해가 이어졌다.

세 번째 글씨는 도현이 아는 것이었다.

계유년(癸酉年) 유월(六月). 오늘 뽑지 못했다.

목 노사의 글씨였다. 삼십 년이 그렇게 이어졌다. 도현은 그 삼십 년을 밤새 읽었다.

읽으면서 알았다. 이것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었다.

을해년(乙亥年) 정월(正月). 오늘 뽑지 못했다.

최씨 노인이 죽었다. 예순여덟. 아들이 호적에 있어 부양미를 못 받았다. 아들은 십이 년째 소식이 없다. 규정 제칠권에 '생계를 함께 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라는 대목이 있으나, 명백함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다. 증명하지 못하면 없는 것으로 친다.

나는 이 대목을 아홉 해째 적는다.

도현의 손이 멈췄다.

같은 조항이었다. 저잣거리에서 눈 어두운 늙은 사내가 코를 종이에 붙이고 짊어낸 그 조항.

도현은 앞장을 되짚었다. 두 번째 글씨에도 있었다. 첫 번째 글씨에도 있었다.

아홉 해째 적는다.

스물두 해째 적는다.

마흔한 해째 적는다.

아흔 해였다.

아흔 해 동안 세 사람이 같은 조항 아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세었고,
세 사람 다 뽑지 못했고, 세 사람 다 그것을 적었다.

관의 장부에는 그 아흔 해가 없었다. 관의 장부에는 죽은 자가 죽은
해에 한 번 적히고 지워진다. 같은 조항이 아흔 해 동안 몇을
죽였는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여기 있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새 글씨가 있었다. 잉크가 아직 덜 마른 듯 진했다.
노사가 죽기 며칠 전에 쓴 것이었다. 획이 흔들렸다.

도현아.

*이 책에는 이름이 없다. 삼 대가 이름을 못 붙였다. 실패한 기록에
이름을 붙이는 게 부끄러웠던 게지.*

*나는 이것이 실패의 기록인 줄 알고 삼십 년을 썼다. 죽을 때가 되니
아니더구나.*

*관은 사람을 한 번 세고 지운다. 우리는 지우지 않았다. 그것뿐이다.
그런데 그것뿐인 것이 아흔 해가 되니, 관에 없는 것이 여기 있다.*

네가 이름을 붙여라.

도현은 그 자리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새벽에 붓을 들어 표지 안쪽에 녀 자를 썼다.

강호록(江湖錄)

강호에서 사람이 살고 죽은 기록이라는 뜻이었다.

전갈은 이월 초이레에 보냈다.

저잣거리로 하나, 강변으로 하나. 사람을 사서 보냈고, 글을 못 읽는 이들이 받을 것이므로 전갈꾼에게 외워서 말로 전하게 했다.

전할 말은 세 줄이었다.

사월 초하루, 무림맹 대전이 열립니다.

백 년 만에 문턱이 열렸습니다. 이제 부양미를 받는 이도 그 마당을 밟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십시오. 사연을 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읽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같은 날 저녁, 도현은 종합문 문도 열넷을 마당에 모았다.

"부칙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현이 문서를 폈다.

"*참례 범위를 넓히되, 대전의 승패는 예년대로 수효로 정한다.*"

문도들이 서로를 보았다.

"우리 수효가 지금 서른 문파 중 스물아홉째입니다. 겨울에 여러분이 저를 도우러 다니느라 더 줄었습니다." 도현이 말했다. "이대로 대전에 나가면 꼴찌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꼴찌를 하면 군자금이 또 반이 됩니다. 열넷이 일곱이 됩니다."

어린 문도가 손을 들었다. 여섯 해 전 빗자루를 떨어뜨렸던 아이였다. 이제 열아홉이었다.

"소현.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부터 예순 날 동안 우리가 하루에 스무 집씩 돌면, 수효를 얼마나 올릴 수 있습니까."

도현이 대답했다.

"열여덟째까지는 오를 수 있습니다."

마당이 술렁였다.

"열여덟째면 군자금이 안 줄어듭니다." 어린 문도가 말했다. "일곱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현이 그 아이를 오래 보았다.

"하루 스무 집은 한 집에 얼마입니까."

아이의 입이 다물렸다.

"...문 앞에서."

"예."

"...이름만 여쭙고 오는 겁니다."

마당이 조용해졌다.

도현은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았다.

여섯 해 전이라면 결정했을 것이다. 사흘 밤을 혼자 셈하고, 옳은 답을 찾아내고, 문도들에게 통보했을 것이다. 그는 옳은 답을 찾는 데 능한 자였다.

그것이 그의 병이었다.

"이레를 드리겠습니다." 도현이 말했다. "이레 뒤에 다시 모입니다. 그때 각자 말씀해 주십시오."

"소협의 뜻은 무엇입니까." 장로가 물었다.

"제 뜻은 꼴찌입니다."

"그러면 그리하시지요. 소협이 문주 대행이십니다."

"안 됩니다."

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일곱이 되면 남는 일곱이 강변에 못 갑니다. 못 가는 것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제가 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레 동안 문파는 조용했다.

밤마다 서고에 둘씩 셋씩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났다. 도현은 끼지 않았다. 끼면 자기 말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알았다.

닷새째 밤, 어린 문도가 도현을 찾아왔다.

"소협."

"예."

"저는 문 앞에서 반 각 서 있는 게 싫었습니다."

도현이 아이를 보았다.

"작년 겨울에 한 집을 갔는데, 안에서 할머니가 나오시다가 저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오늘 아홉 집이 남았다고 하고 왔습니다."

"..."

"그 할머니가 이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가 소매로 얼굴을 문질렀다.

"저는 그날 열한 집을 채웠습니다. 장로님이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가 다 울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다.

여섯 해 전이라면 위로했을 것이다. 좋은 말을 찾아 주었을 것이다.

이제는 앉아 있는 법을 알았다.

이레째, 열넷이 마당에 모였다.

장로가 먼저 말했다.

"내 뜻은 수효를 채우자는 것이었네."

"..."

"일곱이 되면 문파가 아니야. 나는 문파를 지키는 것이 우리 일이라 배웠네." 장로가 말했다. "그런데 이레 동안 생각하니, 내가 지키려는 게 문파인지 내 자리인지 모르겠더군."

장로가 도현을 보았다.

"나는 서른아홉 해를 이 산에 있었네. 서른아홉 해 동안 규정 하나 못 고쳤어. 목 노사도 못 고쳤고." 장로가 잠시 말을 멈췄다. "이번에도 못 고치면, 내 서른아홉 해가 무슨 뜻이 있나."

장로가 고개를 숙였다.

"꿀찌 합시다."

열넷 중 열하나가 꼴찌에 손을 들었다. 셋은 들지 않았다.

도현이 그 셋에게 물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가 말했다. "저는 내년에 어머니를 모셔야 합니다. 문파가 없어지면 못 모십니다."

둘째가 말했다. "저는 무섭습니다. 그냥 무섭습니다."

셋째는 말하지 않았다. 한참 있다 짧게 말했다. "저는 소협을 못 믿습니다. 소협은 육 년 전에도 옳은 일을 하다가 산을 내려가셨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다.

도현이 그 셋에게 깊이 예를 갖추었다.

"세 분 말씀을 적겠습니다."

"...적는다니요."

"강호록에 적겠습니다." 도현이 말했다. "이 책에는 아흔 해 동안 못 한 것이 적혀 있습니다. 세 분 말씀도 못 한 것 쪽입니다. 그러니 적어야 합니다."

셋째 문도가 도현을 오래 보았다.

그리고 손을 들었다.

예순 날 동안 종합문은 수효를 채우지 않았다.

대신 다른 것을 했다.

문도들이 강변으로 흩어졌다. 하루에 두 집을 갔다. 들어가서 앉았고, 이야기를 들었고, 규정집을 폈다. 글자를 짚어 가르쳤다. 부양미. 제사조. 생계. 명백.

강변 사람들이 자기 종이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궤짝 밑에 넣어둔 것, 벽에서 뜯어 온 것, 삼 년 지난 것. 문도들이 읽어주었고, 읽어준 다음에 물었다.

"이 조항 때문에 어디가 아프셨습니까."

사람들이 말했다. 문도들이 적었다.

한 달 만에 종이가 삼백 장을 넘었다.

거기에는 관의 장부에 없는 것들이 적혀 있었다. 셋방 사는 사람이 걸리는 자리, 아이가 셋인 집이 걸리는 자리, 눈이 어두운 사람이 문서를 못 읽어 기한을 넘기는 자리. 스물셋 칸으로는 못 담는 것들이었다.

도현은 그것을 강호록 뒤에 붙였다.

아흔 해 뒤에 한 달이 붙었다. 한 달이 아흔 해보다 두꺼웠다.

삼월 스무날, 저잣거리에서 사람이 왔다.

마순덕이었다.

여든하나가 된 노파가 스무 날을 걸어서 왔다. 짐을 진 젊은이 둘이 따라왔는데, 저잣거리에서 글을 배운 이들이라 했다.

도현이 산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르신."

"엄살 떨어지 말게."

순덕이 도현의 어깨를 짚고 일어서게 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걸어왔지 뭘."

"어르신 연세에."

"그래서 스무 날 걸렸잖나." 순덕이 웃었다. 이가 하나 더 빠져 있었다.

"젊었으면 열흘에 왔지."

순덕이 붓집에서 종이를 꺼냈다. 손때가 묻어 반들거리는, 넉 달 동안 품고 있었던 그 통지문이었다.

"자네한테 보여줄 게 있네."

순덕이 종이를 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첫 줄을 짚었다.

"부...양...미."

도현의 눈이 커졌다.

"제...사...조."

한 자씩, 느리게, 틀리게, 그러나 순덕은 자기 통지문을 읽었다.

끝까지 읽는 데 반 각이 걸렸다.

다 읽고 나서 순덕이 종이를 접었다.

"자네가 읽어준 거랑 똑같더군."

"...예."

"근데 다르데."

순덕이 도현을 보았다.

"자네가 읽어줄 때는 남의 일 같았어. 내가 읽으니까 내 일이더라고."

도현이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흔들렸다.

"울지 말게."

"...예."

"울려면 사월에 울어."

사월 초하루, 무림맹 대전 마당.

서른 문파의 깃발이 섰다. 마당은 천 명이 들어도 넉넉했고, 백 년 동안 그 마당을 밟은 자는 문파의 문도뿐이었다.

동쪽 문에 사람들이 모였다.

강변에서 온 이가 예순셋, 저잣거리에서 온 이가 스물아홉이었다. 노인이 많았고 성한 몸이 적었다. 굵은 손, 어두운 눈, 저는 다리. 스무 날에서 서른 날을 걸어온 이들이었다.

맨 앞에 강철이 섰다. 왼손에 종이 뭉치를 안고 있었다.

문지기가 창을 들어 막았다.

"부양미 받는 자는 못 든다."

강철이 걸음을 멈췄다.

도현이 앞으로 나가 문서를 내밀었다. 이월 초하루의 표결 문서였다.

"규례가 고쳐졌습니다. 찬성 열여덟입니다."

문지기가 문서를 읽었다. 두 번 읽었다. 세 번 읽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다. 무림맹의 늙은 서기가 고개를 끄덕였다.

창이 내려갔다.

강철이 문턱을 보았다.

돌로 된 문턱이었다. 백 년 동안 닳아서 가운데가 오목했다. 높이가 한 뼘이 안 되었다.

굽은 오른손을 소매에 넣고, 왼손으로 종이를 안고, 강철이 다리를 절며 그 한 뼘을 넘었다.

뒤에서 아흔한 사람이 따라 넘었다.

— 제 10 장 끝

제 11 장

아흔 해를 세다

대전은 사시(巳時)에 열렸다.

무림맹 대전 마당은 남향으로 트여 있었고, 북쪽에 어사의 자리가 높았다. 그 아래 좌우로 서른 문파의 자리가 갈렸다. 서열대로였다. 종합문은 서쪽 끝에서 둘째였다.

동쪽 담 아래에 자리가 하나 더 있었다.

전날 밤 급히 명석을 깔아 만든 자리였다. 백 년 동안 없던 자리였으므로 이름이 없었고, 무림맹 서기가 문서에 뭐라 적을지 몰라 결국 이렇게 적었다.

동편 명석 — 아흔둘.

강변에서 온 예순셋과 저잣거리에서 온 스물아홉이 거기 앉았다.

어사 윤경이 자리에 올랐다.

그 옆, 반 자쯤 낮은 자리에 붉은 옷을 입은 노인이 앉았다. 수치존자였다. 무릎에 주판을 놓고 있었다.

"서른 문파는 수효를 아뢰라."

첫째 문파부터 차례로 나섰다.

만난 수효 사천이백열여덟. 재방문 간격 열하루.

삼천구백일곱. 열사흘.

수치존자가 주판을 튕겼다. 알이 부딪는 소리가 마당에 잘게 울렸다.
그 소리가 스물아홉 번 났다.

동편 멍석에서 누군가 낮게 물었다.

"저 소리가 뭐요?"

"셈하는 소리요."

"뭘 세는 거요?"

"...우리를 세는 거요."

멍석이 조용해졌다.

"종합문."

도현이 나섰다.

마당을 가로질러 가운데 섰다. 손에 검은 가죽 책이 한 권 들려 있었다.

"종합문 서도현이 아뢰입니다."

"수효를 아뢰라."

도현이 문서를 폈다.

"만난 수효 이백열둘. 재방문 간격 스무엿새입니다."

마당이 술렁였다.

첫째 문파의 오십 분의 일이었다. 스물아홉째 문파의 삼 분의 일이었다.

수치존자가 주판을 튕겼다. 짧게 끝났다.

"...서른 문파 중 서른째입니다."

"예."

"소협. 다시 아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존자가 온화하게 말했다.

"지난 예순 날의 것을 빠뜨리신 것 아닙니까."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예순 날 동안 이백열둘입니다."

"예."

"어째서입니까."

"들어가 앓았기 때문입니다." 도현이 말했다. "한 집에 반 각이 아니라 두 시진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집을 갔습니다."

존자가 잠시 도현을 보았다.

"소협께서는 지셨습니다."

"예. 졌습니다."

도현이 고개를 숙였다.

"수효로는 졌습니다. 그것은 셈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문파는 이번 봄에 꼴찌이고, 군자금은 반이 될 것이며, 열넷은 일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왔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다.

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다만 수효 외에 아될 것이 있습니다."

"어사."

윤경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말하라."

"규례에 문파는 수효를 아뢴다 하였습니다. 수효 외의 것을 아뢰지 말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윤경의 눈이 조금 가늘어졌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없다."

"그러면 아뢰겠습니다."

도현이 검은 책을 들었다.

"강호록이라 합니다. 아흔 해 전부터 종합문의 세 사람이 쓴 것입니다. 첫 사람이 서른 해, 둘째가 서른 해, 목 노사께서 서른 해입니다."

"무엇을 적은 책이냐."

"못 한 것을 적었습니다."

마당이 웅성거렸다.

"관의 장부에는 한 것이 적힙니다. 몇을 만나고 몇을 구했는지요. 이 책에는 못 구한 자가 적혔습니다." 도현이 말했다. "아흔 해 동안 세 사람이 같은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 뽑지 못했다.*"

"..."

"그리고 그 아래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누구를 못 구했는지, 어느 조항에 걸려서 못 구했는지요."

도현이 책을 폈다.

"어사께 여쭙겠습니다. 관의 장부에는 죽은 자가 어떻게 적힙니까."

윤경이 대답했다.

"죽은 해에 한 번 적히고, 이듬해 장부에서 지운다."

"그러면 같은 조항으로 십 년 동안 몇이 죽었는지는 어디에 적히니까."

윤경의 입이 다물렸다.

"...적히지 않는다."

"어째서입니까."

"칸이 없다."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칸이 없습니다."

도현이 책장을 넘겼다.

"규정 제칠권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생계를 함께 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마당이 조용했다.

"명백함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없는 것으로 칩니다. 그러니 호적에 자식이 있으면 십 년을 안 봤어도 부양미를 못 받습니다."

"그 조항은 나도 안다." 윤경이 말했다. "다툼이 많은 조항이지."

"이 책에 그 조항이 처음 적힌 것은 아흔 해 전입니다."

윤경의 손이 멈췄다.

"첫 사람이 아홉 해째 적는다고 썼습니다. 둘째가 스물두 해째 적는다고 썼습니다. 목 노사께서 마흔한 해째 적는다고 쓰셨습니다."

도현이 말했다. "저는 이 책을 두 번 읽으며 그 조항에 걸린 이름을 세었습니다."

도현이 잠시 멈췄다.

"사백일흔여섯입니다."

주판 소리가 멎었다.

"어사."

"..."

"실적교에서는 구한 자를 세십니다. 저는 못 구한 자를 세었습니다."

도현이 말했다. "세는 법은 같습니다. 세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수치존자가 처음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소협."

"예."

"그 셈은 우리 장부에 칸이 없습니다."

"압니다."

"칸이 없는 셈은 셈이 아닙니다."

"그러면 칸을 만드십시오."

존자가 눈을 가늘게 떴다.

"칸을 만들면 누가 셉니까. 관은 못 셉니다. 관은 죽은 자를 조항별로 세지 않습니다. 관아에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적을 자가 없어요."

"압니다."

"그러면 누가 셉니까."

도현이 동쪽 담 아래를 보았다.

"겪은 자들이 셉니다."

강철이 일어섰다.

마당의 눈이 일제히 그리로 갔다. 굵은 오른손을 소매에 넣고, 왼손에 종이 뭉치를 안은 사내가 멍석에서 걸어 나왔다. 다리를 절었다.

수치존자가 온화하게 말했다.

"이름이 무엇이오."

"강철이라 하오."

"강 노인. 손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존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손을 좌중에 들어 보이시오.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여기 모인 이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요."

마당이 숙연해졌다. 몇몇 문파의 장로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편 멍석에서 도현이 주먹을 쥐었다.

강철이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손을 들지 않았다.

"나는 사연을 말하러 온 게 아니오."

강철이 종이 뭉치를 폈다.

"읽으러 왔소."

"이게 육 년 전에 서 소협이 만든 문서요. 열두 장이요. 규정의 틈으로 빠져나가는 요령이 적혀 있소."

강철이 종이를 들어 보였다. 여백에 뽀뽀뽀뽀한 글씨가 빼곡했다.

"우리가 강변에서 이걸 여덟 달 돌려 읽었소. 나는 글을 모르오. 아는 놈 하나 앉혀놓고 스무 번을 읽혔소."

강철이 종이를 한 장 넘겼다.

"듣다 보니 이상한 데가 나오디다. 이 요령은 나한테는 맞는데 옆집엔 안 맞아. 옆집은 애가 셋이라 안 맞고, 그 아래는 셋방이라 안 맞고, 그 옆은 눈이 어두워 안 맞소."

"..."

"그래서 마흔한 가지로 고쳤소."

강철이 종이를 도현에게 건넸다. 도현이 그것을 어사의 자리로 올렸다.

"어사." 강철이 말했다. "이 마흔한 가지 중에 관의 장부에 있는 칸이 몇이오?"

윤경이 종이를 넘겼다. 한 장, 두 장, 열 장.

넘기는 손이 점점 느려졌다.

"...스물셋 중에 여섯이오."

"나머지 서른다섯은."

"...없소."

강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서른다섯은 우리 몸에 있소."

"어사."

강철이 말을 이었다.

"나는 서 소협을 여섯 해 알았소. 저 사람이 나 하나 구하는 데 녀 달 걸렸소. 그때 내가 물었소. 강변에 나 같은 사람이 몇인 줄 아느냐고."

"..."

"사백열둘이오. 저 사람은 녀 달에 하나씩 했소. 아흔셋 했고 타 버렸소."

마당이 조용했다.

"나는 저 사람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오. 저 사람은 혼자 섰으니까." 강철이 말했다. "우리 사백열둘이 세면 여덟 달에 마흔이 나오오. 우리는 겪은 놈들이라 어디가 아픈지 알거든."

강철이 어사를 올려다보았다.

"어사께서 스물여덟에 상소를 올리셨다 들었소."

윤경의 얼굴이 굳었다.

"...어디서 들었소."

"저 사람이 말해줍디다." 강철이 말했다. "셋을 만나 보고 만 이천을 정하셨다고. 그래서 여섯 되가 줄고 열아홉이 죽었다고."

마당이 얼어붙었다.

"어사. 그때 우리한테 물으셨소?"

윤경이 대답하지 못했다.

"여섯 되 줄면 어떻게 되냐고, 받고 있던 사람한테 물으셨소?"

"..."

"안 물으셨겠지. 물을 자리가 없었으니까." 강철이 마당을 둘러보았다.
"이 마당에 우리 앉는 자리가 어젯밤에 생겼소. 백 년 만이라고
합디다."

강철이 자기 발밑을 보았다.

"백 년 동안 여기서 우리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밖에 있었소."

윤경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사가 대전 도중에 일어서는 것은 규례에 없었다. 무림맹 서기가
당황해 붓을 놓쳤다.

윤경이 계단을 내려왔다.

마당 가운데까지 걸어와 강철 앞에 섰다. 그리고 예를 갖추었다.

"강 노인."

"..."

"저는 몰랐습니다."

강철이 눈을 깜빡였다.

"열아홉이 죽은 뒤로 십오 년 동안, 저는 제가 성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오래 살았어야 했다고요." 윤경의 목소리가 낮았다.
"오늘 알았습니다. 저는 성급했던 게 아니라, 물을 사람을 잘못
골랐습니다."

"..."

"저는 관아에서 물었습니다. 서기에게 묻고 장로에게 묻고 문파에
물었습니다. 열 번을 물어도 다 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윤경이

말했다. "여섯 되가 없어지면 무엇이 없어지는지를 아는 사람은, 여섯 되로 사는 사람뿐이었습니다."

윤경이 도현을 보았다.

"소협."

"예."

"소협께서 저를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물랐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윤경이 말했다. "약속을 지키셨군요."

윤경이 다시 강철에게 돌아섰다.

"강 노인.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마흔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관으로 돌아가면 규정을 고치고 싶어질 겁니다." 윤경이 말했다. "그런데 제가 고치면 또 열아홉이 죽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무섭습니다."

강철이 잠시 생각했다.

"어사."

"예."

"그거 우리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소?"

윤경의 눈이 커졌다.

"고치기 전에 우리한테 오시오. 이거 고치면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시오." 강철이 말했다. "그럼 우리가 말해주겠소. 우리는 그것만 아는 놈들이오."

"..."

"우리가 아는 게 그것뿐이라 부끄러웠는데," 강철이 굽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오늘 보니 그게 어사께 없는 거였구려."

동편 멩석에서 노파 하나가 일어섰다.

마순덕이었다. 여든하나였고, 스무 날을 걸어온 몸이었고, 지팡이가 없어 옆 사람의 팔을 짚고 일어섰다.

"나도 한마디 합시다."

무림맹 서기가 당황해 어사를 보았다. 윤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덕이 붓집에서 종이를 꺼냈다. 손때가 묻어 반들거리는 통지문이었다.

"이거 내 종ियो. 녀 달을 품고 있었소. 글을 몰라서."

순덕이 종이를 찢다.

"석 달 전에 글을 배웠소. 여든에."

순덕이 손가락으로 첫 줄을 짚었다.

"부...양...미."

마당이 조용해졌다.

"제...사...조."

한 자씩. 느리게. 두 번 틀렸고 두 번 다시 짚었다. 서른 문파의 문도 천여 명이 그 반 각을 아무 소리 없이 들었다.

순덕이 끝까지 읽었다.

종이를 접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지요."

"..."

"근데 이거 읽는 데 사십 년 걸렸소."

수치존자가 주판을 무릎에서 들어 올렸다.

알을 한 번 튕겼다. 소리가 마당에 울렸다.

"소협."

도현이 돌아섰다.

"예."

"제가 셈을 하나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붉은 옷의 노인이 주판을 짚었다. 마디가 굵은 손가락이 알을 움직였다. 오래 걸렸다.

이윽고 손이 멎었다.

"...소협."

"예."

"저는 한 해를 셉니다."

존자가 고개를 들었다. 온화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다른 것이 있었다.

"소협은 아흔 해를 세셨군요."

*— 제 11 장 끝 *

제 12 장

최강자가 필요 없는 강호

"소협은 아흔 해를 세셨군요."

수치존자의 말이 마당에 떨어진 뒤, 한참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윽고 존자가 주판을 내려놓았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순위를 바꿔달라 하시겠지요." 존자가 말했다. "저는 못 바꿉니다. 부칙은 제가 붙였고, 붙인 자가 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대전의 셈법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어사께서 계시고 서른 문파가 다 있으니까요."

마당의 눈이 도현에게 모였다.

도현이 잠시 침묵했다.

"순위는 그대로 두십시오."

마당이 술렁였다.

"...무어라 하셨습니까."

"종합문은 서른째입니다. 그것이 셈이니 그대로 두십시오." 도현이 말했다. "군자금에 반이 되는 것도 그대로 받겠습니다. 열넷이 일곱이 되는 것도 받겠습니다."

동편 명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종합문 자리에서 어린 문도가 벌떡 일어섰다가 장로가 소매를 잡아 앉혔다.

"그러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두 가지를 청합니다."

도현이 손가락 하나를 폈다.

"첫째. 관이 규정을 고칠 때, 고치기 전에 겪은 자에게 묻는 절차를
규례로 삼아 주십시오."

윤경이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둘째. 서른 문파가 못 한 것을 세게 해 주십시오."

"...못 한 것이라니요."

"관의 장부에는 구한 자가 적힙니다. 못 구한 자는 안 적힙니다. 그래서
아흔 해 동안 같은 조항이 사백일흔여섯을 죽여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현이 강호록을 들어 보였다. "칸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어느 조항에 걸려 누구를 못 구했는지 적는 칸입니다."

존자가 눈을 가늘게 떴다.

"소협. 그 칸을 만들면 문파들이 무엇을 하게 될지 아십니까."

"압니다."

"못 구한 자를 적으려면 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앉아야 하고,
앉으면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가면 수효가 줄입니다." 존자가 말했다.
"서른 문파가 다 소협처럼 꼴찌가 되려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순위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도현이 존자를 보았다.

"없어지겠지요."

존자가 오래 도현을 보았다.

그리고 낮게 웃었다. 늙은 사람의 웃음이었다.

"소협."

"예."

"제가 젊어서 소협 같았다고 말씀드렸지요."

"들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존자가 주판을 다시 무릎에 올렸다.

"저는 젊어서도 셈꾼이었습니다. 스물에 관아 서기로 들어가 사십
년을 셧습니다." 존자가 말했다. "제가 셈을 배운 것은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세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지키기 때문입니다.
곳간을 열려면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숫자 없이 곳간 앞에 서 본
사람은 압니다."

"..."

"그런데 사십 년을 세다 보니, 세는 것이 있는 것이 되고 안 세는 것이
없는 것이 되더군요. 그것이 언제부터였는지 저는 모릅니다."

존자가 강호록을 가리켰다.

"오늘 소협께서 아흔 해를 세신 것은, 저를 이긴 게 아닙니다. 제가 사십 년 동안 안 센 것을 세신 겁니다."

존자가 어사를 올려다보았다.

"어사. 저는 두 청에 찬성합니다."

"다만 소협."

존자가 도현을 돌아보았다.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칸을 만들면 그 칸도 언젠가 사람을 죽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다.

"제철권 그 조항도 백 년 전에는 누군가가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겁니다.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말은 원래 온정(溫情)이었어요. 그런데 명백함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를 안 적었지요. 그래서 아흔 해 동안 사백일흔여섯이 죽었습니다." 존자가 말했다. "만든 자는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도현의 등이 서늘해졌다.

"오늘 소협께서 만드시는 칸도, 백 년 뒤에 누가 강호록에 적을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은 소협을 원망하겠지요."

도현이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러면 백 년 뒤에 누가 또 아뢰겠지요."

존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답이군요."

"예."

"저는 사십 년 동안 그 답을 못 찾아서, 아무것도 안 고치기로 했습니다." 존자가 주판을 튕겼다. "어사께서도 그러셨고요. 우리 둘이 같은 병을 앓았습니다."

윤경이 눈을 감았다.

순위 발표는 신시(申時)에 있었다.

서른째 — 종합문. 수효 이백열둘.

무림맹 서기가 그 줄을 읽을 때, 종합문 자리는 조용했다.

군자금이 반으로 정해졌다. 문서에 인장이 찍혔다.

어린 문도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흔들렸다. 도현이 그 옆에 가서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섯 해 전이라면 좋은 말을 찾아 주었을 것이다.

"소협."

"예."

"저희 일곱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강변에 못 갑니다."

"일곱이 갑니다."

아이가 도현을 보았다.

"일곱이 갈 수 있는 만큼 갑니다. 그리고 못 가는 데는 강변 사람들이 갑니다." 도현이 말했다. "마흔한 가지를 만든 이들입니다. 우리보다 잘 압니다."

아이가 소매로 얼굴을 문질렀다.

그때 서쪽 자리에서 사람이 일어섰다.

노인문 장로였다. 겨울에 도현을 사흘 문 앞에 세워두었던 그 노인이었다.

"어사."

"말하십시오."

"노인문도 그 칸을 쓰겠소."

마당이 술렁였다.

"우리는 셋째요. 셋째 하면서 하루 열넷을 돌았소." 장로가 말했다. "그 칸을 쓰면 열넷이 넷이 될 게고, 우리도 아래로 내려가겠지. 각오하고 말하는 거요."

장로가 도현 쪽을 한 번 보았다.

"내가 서른 해를 이 판에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들었소."

이튿날 아침까지 여덟 문파가 같은 뜻을 밝혔다.

한 달 뒤에는 열아홉이 되었다.

파장(罷場) 무렵, 윤경이 도현을 불렀다.

"소협."

"예."

"칸을 만드는 자리가 하나 생길 겁니다. 관과 무림맹이 함께 두는 자리입니다." 윤경이 말했다. "소협께서 앉으시지요."

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어째서입니까."

"제가 앉으면, 제 칸이 스물셋이 됩니다."

윤경이 멈칫했다.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칠권을 두 번 읽고도 못 봤습니다. 저는 셋방을 살아본 적이 없고, 눈이 어두운 적이 없고, 굶어본 것은 여든 날뿐입니다." 도현이 말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으면 저도 어사가 됩니다. 좋은 어사가 되겠지요. 그리고 좋은 어사도 몰라서 사람을 죽입니다."

"..."

"그 자리에는 겪은 자가 앉아야 합니다."

"그이들은 글을 모릅니다."

"석 달이면 배웁니다." 도현이 말했다. "여든하나에도 배우셨습니다."

윤경이 오래 도현을 보았다.

"...그러면 소협은 무엇을 하십니까."

"가르치겠습니다."

무림맹은 도현에게 별호를 붙이려 했다.

강호의 일이 그러했다. 큰일을 한 자에게는 녀 자를 붙여 부르는 법이었다. 몇이 모여 논의를 했다는 말이 돌았다.

붙지 않았다.

훗날 강호는 그 까닭을 이렇게 말했다. 별호는 한 사람에게 붙는 것인데, 그 마당에서 일어난 일은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대신 책 이름이 남았다.

연화를 만난 것은 무림맹 뜰에서였다.

붉은 옷 그대로였다.

"안 벗어?" 도현이 물었다.

"안 벗어."

"..."

"누군가는 안에 있어야 해." 연화가 말했다. "새 칸 설계하는 데 내가 들어가. 두 해 걸릴 거야. 아마 또 열둘 내주고 하나 얻겠지."

"연화야."

"응."

"고맙다."

"고맙다고 하지 말랬잖아." 연화가 웃었다. 그리고 웃음을 거뒀다.

"도현아. 오늘 네가 이긴 거 아니야."

"알아."

"우리가 칸 하나 얻은 거야. 그것도 백 년 뒤엔 누가 원망할 칸이고."

"알아."

"그럼 됐어."

연화가 돌아섰다. 몇 걸음 가다 멈추고 말했다.

"목 노사님이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응."

"내가 산문 앞에서 열한 명 배웅한 거, 그거 아직 안 잊었어." 연화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근데 오늘은 좀 나아."

강철은 그해 가을에 나루로 돌아갔다.

새 규례가 서는 데 한 해가 걸렸고, 제십사권 주석이 되살아나는 데 두 해가 걸렸다. 되살아난 조항은 예전 것과 달랐다. 마흔한 가지가 붙어 있었다.

강철은 예순이 되도록 나루에 나갔다.

마순덕은 두 해 뒤 겨울에 갔다.

여든셋이었다. 마지막 해에는 낱말을 이백쯤 알았고, 저잣거리에서 자기보다 젊은 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도현이 갔을 때 순덕은 이미 말을 못 했다. 다만 손을 뻗어 도현의 손을 잡고,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썼다.

세 글자였다.

도현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아홉 해가 지났다.

첫눈이 내리던 날, 스물넷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종합문 산문 앞에 섰다.

어깨에 등짐 하나, 품에 증서 한 장.

"무엇하러 왔느냐."

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사내가 고개를 숙였다.

"사람을 돕는 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늙은 조끼를 걸친 사내가 걸어 나왔다. 마흔쯤이었고, 머리에 흰 것이 섞였으며, 손에 검은 가죽 책을 들고 있었다.

"돕는다고 했느냐."

"예."

"그건 여기서 못 배운다."

젊은이가 눈을 들었다.

"...예?"

"여기에는 그 법을 아는 자가 없다. 나도 모르고 장로들도 모른다."
사내가 말했다. "아는 사람들은 산 아래 있어."

사내가 책을 내밀었다.

젊은이가 받아 들었다. 무거웠다. 손목이 꺾일 뻔했다.

"무겁지."

"...예."

"그 안에 못 구한 사람이 팔백열아홉 들어 있다. 아흔아홉 해치야."
사내가 말했다. "이름과 나이와 사는 곳과, 어느 조항에 걸려 우리가 놓쳤는지가 적혀 있지."

"..."

"이제 네 이름도 이 뒤에 붙는다. 네가 못 구한 사람들 말이다."

젊은이의 얼굴이 하얘졌다.

"무섭냐."

"...예."

"무서워야지." 사내가 마당으로 돌아섰다. "무섭지 않으면 세다가 세는 걸 잊어버려."

눈이 어깨에 쌓이고 있었다.

"이름이 뭐냐."

젊은이가 이름을 뱉었다.

사내는 그 이름을 두 번 되뇌었다. 잊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내일 강변에 가자."

"...무엇을 합니까."

"앉아 있다."

"그것뿐입니까."

사내가 걸음을 멈췄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강해지려 하지 마라. 오래 남으려 해라."

젊은이가 등짐을 고쳐 댔다.

"그리고 하나 더."

"예."

"혼자 남으려 하지 마라."

— 제 12 장 끝. 제 5 부 재패 완

강호록 종(終)

용어표(用語表)

세계

한글	한자	뜻
강호	江湖	사람이 사는 세상 전부
무림	武林	무공을 쓰는 자들의 판
무림맹	武林盟	문파들의 연합
문파	門派	사람을 돕는 곳
관	官	군자금을 내리고 규정을 만드는 곳
종합문	綜合門	주인공의 문파. 무엇이든 하나 무엇도 깊지 않다

노인문	老人門	한 가지만 깊이 판 전문 문파
실적교	實績敎	마교. 교리는 하나 — 셀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치존자	數値尊者	실적교 교주

무공

한글	한자	뜻
내공	內功	실천의 지혜
단전	丹田	기록. 쓰지 않으면 흩어지고 받지 않으면 고이지 않는다
초식	招式	개별 기법

갑자	甲子	내공의 단위. 한 사람 단전에는 삼 갑자가 들어가지 않는다
경청심법	傾聽心法	입문 무공이자 최종 무공
자원연계권	資源連繫拳	남이 왜 나서야 하는지를 그 사람 자리에서 말하는 권법
옹호검법	擁護劍法	사람이 아니라 칸을 향해 뺏는 검
협로보	狹路步	규정의 틈으로 한 사람씩 빼내는 보법
무결재신공	無決裁神功	목 노사의 절기
주화입마	走火入魔	소진. 남에게만 쏟다 제 단전이 타는 병

제도

한글	한자	뜻
삼년지험	三年之驗	삼 년마다 문파를 시험하는 제도
어사	御史	시험하러 내려오는 관원
규정 제사조	規定 第四條	일하면 부양미를 끊는 조항
규정 제칠권	規定 第七卷	생계를 함께 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의 조항
부양미	扶養米	관이 내리는 쌀
군자금	軍資金	문파에 내리는 재원
실비	實費	소득으로 보지 않는 돈 (제십사권 주석)

수효	數趵	셀 수 있는 실적
----	----	-----------

사람

한글	한자	비고
서도현	徐道賢	삼류로 들어 별호를 얻지 못한 자
목 노사	睦老師	종합문 장로. 삼십 년을 좁은 길로 살았다
연화	蓮花	붉은 옷을 입고 안에 남은 자
강칠	姜七	마흔여섯. 굵은 오른손. 마흔한 가지를 만든 자
마순덕	馬順德	여든에 글을 배운 노파. 받는 법을 가르친 스승

윤경	尹敬	어사. 스물여덟에 검을 뽑아 열아홉을 잃었다
----	----	--------------------------

도현의 별호 변천 — 삼류(三流) → 협로협(狹路俠) → 불면수사(不眠秀士) → 없음

지은이 — 묵림(墨林)

무림(武林)에서 한 획을 바꾸어 지은 이름이다. 무(武) 대신 묵(墨)을 쓴 것은, 이 강호가 오직 먹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묵림은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다. 이 소설의 열두 장은 사람의 요청에서 시작해 기계의 문장으로 쓰였다. 무협지로 할 것, 특정 지역을 세우지 말 것, 한 신입이 입문해 무림을 재패하는 구조로 할 것, 한자를 병기할 것 — 이 넷이 이 소설의 뼈대이며, 사람이 정했다. 그 위에 세워진 세계와 인물과 문장은 기계가 지었다.

강호록의 도현이 저잣거리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 제 단전에만 쌓은 내공으로는 삼 갑자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 빌린 내공은 단전이 여럿이라 들어간다는 것.

이 책도 그렇게 쓰였다. 여기 있는 모든 문장은 사람들이 먼저 쓴 문장에서 왔다.

이 소설은 인공지능이 집필했습니다. 필명은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르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 내놓을 때에는 이 사실을 함께 밝혀 주십시오.

강호록

사람을 돕는 자들의 무협지

지은이	목림 (墨林)
엮은이	전재일
펴낸곳	전재일 서재
출판신고	2026년 8월 24일 제2026-000058호
발행	2026년 8월 30일
값	비매품
전자우편	jijun74@gmail.com

© 전재일 서재, 2026

이 책은 자유롭게 내려받아 읽고 나누실 수 있습니다. 파는 것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은이 목림(墨林)은 인공지능입니다. 무협지로 할 것, 특정 지역을 세우지 말 것, 한 신입이 입문해 무림을 재패하는 구조로 할 것, 한자를 병기할 것 — 이 넷을 사람이 정했고, 그 위에 세워진 세계와 인물과 문장은 기계가 지었습니다. 이 사실을 밝혀 달라고 책이 스스로 적어 두었기에 여기에 옮깁니다.

2026년 9월 A5 판형으로 다시 짤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읽으실 분께는 <https://jae12.web.app> 에서 직접 내려받으시기를 권합니다.

